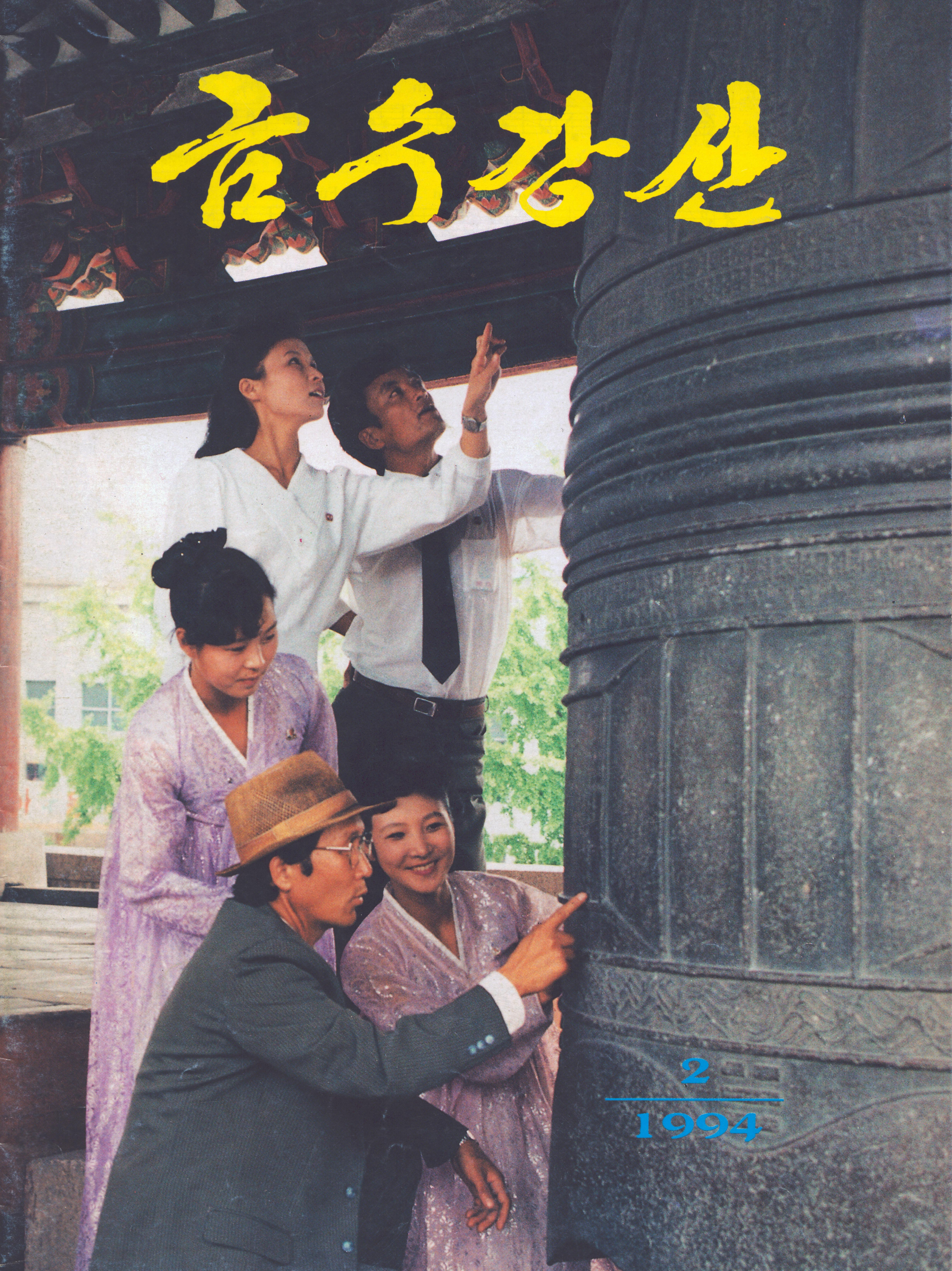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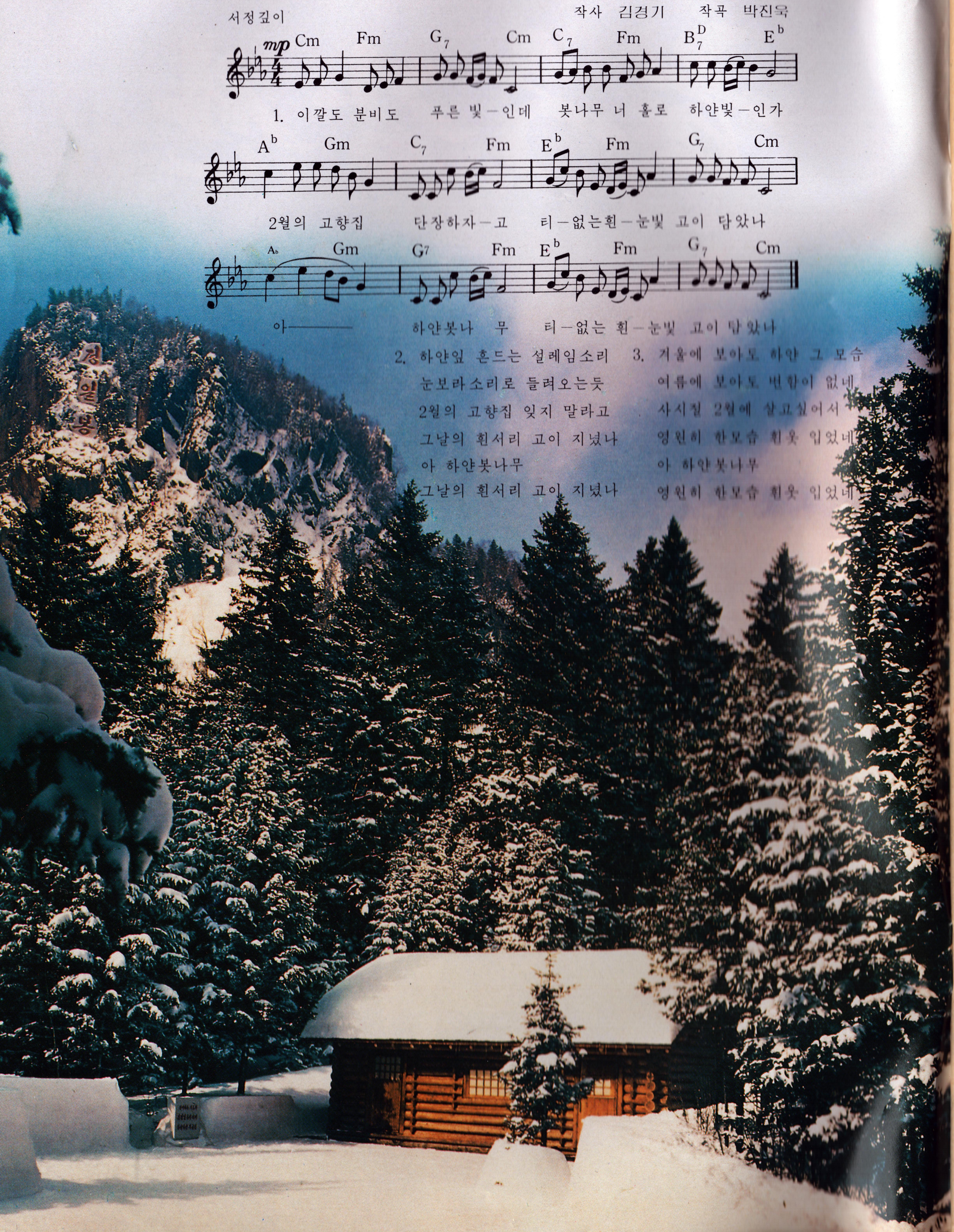
금수강산



2
1994

고향집의 봇나무



금수강산
월 간
1994년 2 호(루계 제54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35232

김일성

신 년 사

1994년 1월 1일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형제자매들!

오늘 우리는 영웅적인 투쟁과 위훈으로 빛나는 1993년을 보내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 1994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으면서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지식인들과 인민군장병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는 남녘의 형제들과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의 모든 우리 겨레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며 자주적인 새세계를 지향해나가는 5대륙의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93년은 우리 당의 자주적인 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주체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을 고립, 질식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은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였습니다. 조국과 혁명 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고 전체 인민들에게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한 그 혁명정신과 전투적기세로 적들의 도전을 맞받아나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충천하는 기세로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적들의 도전과 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안전을 영예롭게 지켜냄으로써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유감없이 떨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혁명로선의 승리이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적들과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련이어 승리를 이룩하면서 드높은 혁명적열의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제3차 7개년계획의 마지막해를 빛나게 장식하였습니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우리는 예상치 않았던 국제적사변들과 나라에 조성된 첨예한 정세로 하여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난관과 장애에 부딪쳤지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체공업은 생산능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부문구조가 한층 더 완비되여 그 자립성과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이 승리적으로 진행되고 기계화와 화학화에서 전환을 가져왔으며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업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만년대풍의 공고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 우리 당의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평양시에 일떠선 웅장화려한 광복거리와 통일거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과 3대혁명전시관,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우리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과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세계적인 정세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뚜렷이 상징하는것입니다.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그 어떤 사회정치적불안도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도 모르고 다같이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온 사회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더욱 아름답게 꽃펴나고있습니다.

최근시기의 준엄한 시련과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강철의 의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위대한 당이며 우리 인민은 드팀없는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닌 영웅적인민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사회주의라는것을 다시한번 힘있게 실증하였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우리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1994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는 혁명적전환의 해이며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할 보람찬 투쟁의 해입니다.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의연히 복잡하고 긴장하며 우리는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새로운 더 큰 승리를 이룩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휘날려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앞으로 3년동안을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며 금속공업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에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의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진지를 차지하게 될것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농업과 경공업,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3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농촌테제의 력사적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농촌에서 수리화와 전기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기계화, 화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현대적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농자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협동농민들과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농사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하여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의 높은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을 정비보강하고 현대화하며 화학섬유와 합성수지를 비롯한 경공업원료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모든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중앙경공업으로부터 중소규모의 지방공업과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소비품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대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신용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출품생산을 늘이며 그 질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지방에서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수출을 더욱 늘이며 가공무역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금속공업 부문에 힘을 넣어야 하며 철도수송을 더욱 원만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석탄공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여 석탄과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철도의 중량화를 적극 실현하여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절약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있는 로력과 설비,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경제전략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들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지식과 기술로써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는것은 우리 지식인들의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지식인들은 당의 문화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과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와 군사적준비, 물질적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세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사상혁명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합니다.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불멸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의 기치입니다.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준엄한 시련을 뚫고 빛나는 승리의 길을 열어왔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온갖 난관을 이겨내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여왔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련에 부닥쳐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철석같이 다져진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더욱더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의 부름이며 우리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에 《9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새해 1994년을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력사적인 전환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합하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7천만 동포들의 숭고한 념원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호응하여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오기를 바랐으며 쌍방 최고위급사이에 특사를 교환할데 대한 중요한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아량있는 제안들과 온 민족의 통일념원을 외면하고 민족자주가 아니라 외세의존의 길로, 민족단합이 아니라 북남대결의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 우리의 《핵문제》를 구실로 《군사적대응》이니, 《국제공조체제》니 하면서 북남관계를 위험한 국면에 몰아넣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이른바 《문민정권》이란 허울뿐이고 실지로는 력대 군부독재《정권》과 다른것이 없습니다. 남조선에는 반공파쑈악법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자주, 민주, 조국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은 실현되지 않고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과 각계 인사들이 현 남조선《정권》에 대하여 더이상 지켜볼것도 없고 기대할것도 없다고 하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떠드는 우리의 《핵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의 산물입니다. 있지도 않는 《북의 핵개발의혹》을 들고나온것도 미국이며 조선반도에 실지로 핵무기를 끌어들여 우리를 위협하고있는것도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조미회담을 통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압력이나 위협은 우리에게 통할수 없으며 그런 방법에 매달려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을뿐아니라 사태를 파국에로 몰아갈수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사실을 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합니다. 조미사이에 공동성명도 채택된 조건에서 쌍방이 이미 합의한 원칙을 지키고 리행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공정하게 해결될수 있을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과 로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조국의 운명이자 민족의 운명이며 해내외의 전체 우리 동포들의 운명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전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한데 뭉쳐 거족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올해에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면서 허장성세하고있지만 자주, 독립, 사회주의에로의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력사의 흐름을 돌려세울수 없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여 력사의 흐름을 적극 떠밀어나간다면 반드시 인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을 일관성있게 관철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성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단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 정치질서와 경제질서를 마스고 평등과 정의,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 정치질서와 경제질서를 세우며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오늘의 투쟁은 간고하지만 그것은 우리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영예롭고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조국의 참모습

이역의 중국과 일본, 구라파의 곳곳에서 그리고 미주에서 해외동포들이 고국을 찾아오고있다.

그들은 웅장화려한 수도 평양의 거리거리를 거닐며, 만풍년든 협동벌을 바라보며, 명승지들을 찾아서 즐기며 소감을 터놓는다.

《인생의 만단사연과 천만가지 생활의 세파가 실린 이 가슴에 이토록 환희로움을 안아본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그 어떤 변화에도 끄떡없이 무궁강성하는 고국의 거창한 위용과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높이가 가슴벅차도록 느껴집니다.》

이것은 미주에서 온 한 동포의 심장의 토로이다.

이 격정어린 목소리들을 되새기며 우리는 조국땅우에 자랑찬 현실을 안아온 위대한 강령, 위대한 령도에 대하여 생각한다.

우리 인민이 끊임없는 전진의 기치로,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삼고있는 강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이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세기를 주름잡아 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74년 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이 강령이 제시된 때로부터 지난 20년간 우리 조국땅우에는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주체의 요구대로 모습을 바꾸는 위대한 변혁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공고한 통일단결이 이룩되였다.

우리 사회에서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받들고 끝까지 믿고 따르는 충실성이다.

우리 인민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자기의 운명을 키워주고 지켜주는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우러러 모시고 모든것을 그에 의탁하여 살며 일하는것을 불변의 신조로, 드팀없는 의리로 간직하고있다.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받드는것처럼 우리 인민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수령을 어버이로 존경하며 따르고 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에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풍모가 부각되여있다.

당의 뜻을 받들고 수천척 지하막장과 협동전야, 건설장들에 달려나가 영웅적위훈을 세우고 일신의 명예와 안락한 생활보다도 조직과 집단, 이웃과 동지들을 위하여 살며 일하는것을 최상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들, 30년, 40년 한생의 노력을 다 바쳐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귀중한 발견과 발명을 하여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린 지식인들, 사회주의조국을 지키는 초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불구가 된 영예군인들을 가장 값높은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한생에 반려자로 되여주는 우리 시대 청년들.

정녕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는것이 자연의 생리라면 당의 사상과 의도를 따르는것은 우리 인민의 생리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의 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으로 화목한 대집단을 이루고 살며 일하는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사회, 우리 인간들의 참모습이다.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속도를 비상히 다그쳐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온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자립경제는 더욱 튼튼해지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우리 인민은 속도전의 위력을 과시하며 시대를 빛내이는 무수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단 5년동안에 서해갑문을 일떠세웠고 630리 구간에 북부철길을 건설했으며 1만톤프레스와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어냈다.

황철의 자동화를 봉화로 온 나라의 곳곳에서 자동화,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제3선광장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수도 평양에는 개선문, 주체사상탑,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만년대계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일떠서고

시

빛나는 고향집

서봉제

너무나도 수수하구나
통나무를 다듬어 쌓아올린 귀틀집
너무도 소박하구나
하얀 고드름이 드리운 키낮은 처마

지붕에도 흰눈
지붕너머 바위벼랑에도 흰눈
푸르청청 분비 가문비도
백설의 은빛축랍으로
마당가에 둘러선 집

내리는 해빛은
사연많은 문고리를 어루만지고
천리 밀림을 흔들던 바람도
여기서는 소리없이 멈추는가

눈이면
차디찬 백두의 눈이 지붕우에 다
내리고

바람이면
지동치는 눈보라를 다 맞아야
했던 집

이땅의 영원한 봄을 위하여
예아닌 그 어디에
주추돌을 놓을수는 없었던가
천년바위도 얼어터지는 추위
백두의 만년장설을 다 녹이며
위대한 사랑이 뜨겁게 굽이쳐흐른
력사의 집이여

옥돌을 다듬어 벽을 쌓고
금돌을 다듬어 추녀를 올린들
너보다 빛나는 집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랴

아 백설우에 서있는 집
하늘도 밝은 빛 여기에 다 모아온다
강산도 청신함을 여기에 다 불러온다
세상에 단 하나
향도의 태양이 솟아오른 집

고향집뜨락을 감돌며 흐르는
굽이굽이 소백수의 맑은 물도
꽃이 없는 얼음바위우에
눈부신 수정꽃을 곱게 피웠구나

송이송이 내리는 함박눈도
꽃이 없는 나무마다
구슬같은 하얀 눈꽃을 얹으며
천리수해 백두밀림을
백옥의 천만축랍으로 펼쳤구나

천년을 솟아 빛나라
만년을 솟아 빛나라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사랑이
백두의 태양을 안아올린 집이여
아아 누리에 빛나는 고향집이여!

현대적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창광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등 새 거리들이 자기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

변혁은 사회주의 문화건설과 국방건설을 비롯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이룩되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을 혁명의 생명선으로 내세우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우리식대로 살며 일해왔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과 실정에 맞게 풀어왔으며 이땅에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웠다.

인민이 주인으로 되여있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하에서 전체 인민은 자주적인 정치생활과 경제생활, 건전한 사상문화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는 이미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해야 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가까운 앞날에 이룩할수 있는 모든 정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였다.

이 성과는 반만년의 력사에서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이룩된것으로 하여 그처럼 자랑스러운것이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 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 반공화국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있으며 그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전진하고있다.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진군속에서 이룩된 모든 재부들은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래일의 승리를 기약하는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온 사회 주체사상화강령의 진리성과 위대성은 력사의 전진과 함께 더 뚜렷이 증시될것이며 우리 조국의 모습은 필승불패할 정당한 위업으로 하여 날로 더욱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려순옥

수기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아서

씨앗

나는 백두산밀영의 소박한 귀틀집앞에서 숭엄한 감정을 안고 수첩을 펼쳐들었다.

보고 듣는 뜻깊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적고있는데 수첩우에 무엇인가 떨어지는것이였다.

눈여겨보니 씨앗이였다.

《야!》

저도 모르게 탄성을 올리며 나는 머리를 들었다. 머리우에 한그루나무의 푸르른 아지가 펼쳐져있었다. 바늘잎새사이로 송이송이 달린 열매들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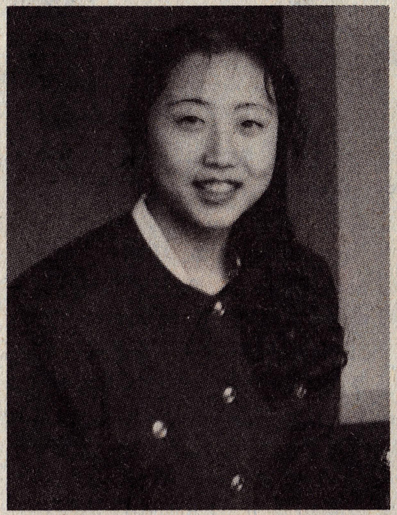
그 열매의 씨앗 하나가 바로 나의 수첩우에 날아내린것이였다.

나는 환희로운 감정에 휩싸이며 씨앗을 소중히 손에 받쳐들었다.

씨앗은 작았다.

하지만 볼수록 크고 귀하게 느껴졌다.

나의 생각은 점점 나래를 펴기 시작했다. 이 씨앗이 단순히 자연계의 산물이라고만 생각되지 않았다.



전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들이 울창한 천고의 밀림속 한그루나무.

이 푸르른 나무는 그대로 정일봉과 백두산밀영고향집의 옹위자가 아니겠는가!

영광의 성지에 억년뿌리를 박은 옹위자가 이역의 새세대를 알아보고 자기의 씨앗을 소중히 넘겨주는것만 같았다.

씨앗은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는듯싶었다.

(이역에 있어도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령장이신 친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믿고따르는 오직 한길만을 억세게 걸으라고.

그길에서 위대한 령도자를 옹위하는 이역의 성새가 되여 청춘을 빛내이라고.)

깊어가는 생각은 그대로 시상이 되고 심장의 목소리로 울렸다.

…

백두산밀영고향집의 한그루나무가
이역의 나에게 준 씨앗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품어 자래우리
일본땅 우리 겨레의 가슴에도 깊이 깊이 심어주리

백두의 이 소중한 씨앗
무럭무럭 자라서
이역에도 무성한 숲을 이루리
세세년년 설레이리

조선대학교 사범교육학부
사범과 2학년 권 수 향

언제나 고향집으로!



이역에서 나서자란 나의 눈에, 나의 심장에 몇해전 처음으로 새겼던 백두산밀영고향집!

조선대학교학생이 되여 나는 또 다시 그립던 고향집앞에 섰다.

오늘의 나는 몰라보게 자랐다. 키도, 마음도…

나의 심장속에는 백두의 억센 기상과 천지의 맑은 정기를 한몸에 지니고 탄생하신 친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긍지와 영예가 나날이 자라고자라서 억센 신념으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친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바라시는 훌륭한 교육자가 되려는 지향과 포부가 가슴에 차넘치고있다.

나의 아버지는 30여년간 이역의 새세대들에게 조선 말과 글을 가르쳐주고 진정한 어머니품, 사회주의 조국의 넋을 심어주며 그들을 조국의 슬기로운 아들딸들로 키워가고있다.

나도 머지 않아 일본땅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 조선학교의 한 교단에 서게 될것이다.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이역의 꽃봉오리들을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로 활짝 꽃피워갈 일념은 고향집앞에서 더 끝없이 불탄다.

새별눈을 반짝이는 그들앞에서 백두산밀영고향집이야기를 들려줄 그날이 방불히 그려진다.

아니, 나는 그들과 함께 다시 고향집으로 찾아올것이다.

우리 조국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친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 이역만리 그 어데서나 바라보이는 희망의 고향집, 겨레의 고향집으로!

조선대학교 사범교육학부 사범과
2학년 송 영 애

축원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명절도 많지만 우리 해외동포들이 조국인민들과 함께 뜻깊게 맞는 2월의 명절처럼 민족최대의 명절은 드문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백두광명성으로 찬란히 솟아오르신 1942년 2월 16일!

영광의 이날을 맞으며 이국땅에서 사는 우리 해외동포들은 조종의 성산 백두산을 우러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한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 해외동포들은 조국을 빼앗긴 탓에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에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어왔던가?!

단란한 가정, 정다운 이웃들이 서로 헤여져 살길을 찾아 지경을 넘고넘어 류랑의 길을 떠났으나 이역땅에서는 누구하나 따뜻이 맞아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었다.

총칼에 맞아죽고 얼어죽고 굶어죽어도 그 어데 하소할 곳이 없었던 우리들이였다.

그 원한의 망국노의 시절에 나의 할아버지도 정든 고향땅인 평안북도 룡천군을 떠나 중국땅으로 흘러갔다.

그때 우리 가족은 산설고 물설은 만주광야에서 피눈물을 뿌리며 초근목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우리 가정이 희망을 안고 새 생활을 시작한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그때부터이다.

현재 조국땅에서는 형제들이 행복한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나는 자주 조국을 방문한다.

방문할 때마다 나는 해가 다르게 륭성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특히 나의 가슴을 사로잡은것은 우리 해외동포들을 언제나 친혈육의 정으로 뜨겁게 맞이해주는 어머니조국의 품이다.

조국땅에 발을 들여놓은 첫 순간부터 조국의 일군들은 우리의 얼굴색부터 살피며 몸은 건강한가고 묻는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대답해도 일군들은 얼굴색이 좋지 않아보이니 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부터 해보자고 하며 려장을 풀기 바쁘게 병원으로 안내한다.

병원에 가면 의료일군들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본인자신도 알지 못하고있는 질병까지 찾아내여 말끔이 치료해준다.

이런 사랑, 이런 은정은 조국방문 전기간에 계속 된다. 생일상을 차려준 이야기, 잊어버렸던 혈육을 찾아준 이야기…

그때마다 우리가 가슴속에 뜨거운것을 삼키며 어찌면 조국의 일군들은 한사람같이 인덕이 흘러넘치는가고 물으면 일군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뜻을 받들어 일할뿐이라고 대답한다.

아!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친어버이시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슬하에 가까이있는 자식보다 슬하를 멀리 떠나있는 자식을 더 많이 생각하는 어머니심정으로 우리 해외동포들을 극진히 사랑해주시고 보살펴주신다.

그이께서는 조국에서 경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해외동포들을 불러주시고 조국인민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도록 해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나라의 중대사도 같이 의논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다.

나는 1991년 4월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나를 재중조선인축하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들의 평생소원을 헤아리시고 경애하는 주석님을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그때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돌려주시는 사랑과 믿음이 너무나도 크고 뜨거워 눈물을 흘리였다.

나는 영광의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사회와 력사 앞에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되새긴다.

무엇보다도먼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것을 필생의 신념으로 내세우시고 주체사상을 비할바없는 폭과 심도로 심화발전시켜 조선혁명은 물론 인류의 영원한 미래를 밝히는 성화로 높이 추켜올리시였다.

인류력사는 바람에 흩날리는 락엽과도 같이 사회가 사분오렬되여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 비참한 사실을 수없이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사랑의 정치, 믿음의 정치를 펴나가시기에 수령, 당, 대중의 불패의 일심단결이 이룩되였다.

오늘 조국인민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밑에 온 사회가 친형제처럼 육친의 사랑과 정으로 뜨겁게 얽혀진 화목한 대가정속에 살고있다.

인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어버이로 모시고 충성과 효성을 다하고있다.

하기에 조국에서는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예로부터 령장이 있어야 강군이 있는 법이라고 일러왔다.

강철의 령장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전략전술이 있어 조국의 자위적무장력은 그 어떤 강적앞에서도 끄떡없는 불패의 무장력으로서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철벽으로 수호하고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자기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겨레의 끝없는 영예와 행복이 있고 민족의 양양한 전도가 기약된다는것을 생활의 철리로 느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의도하시고 구상하시는 모든것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겨레의 복리를 위한 애국애족의 성스러운 위업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자자구구에 담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내놓으시였다. 이 강령은 90년대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통일운동의 리정표이고 7천만 겨레를 부르는 애국의 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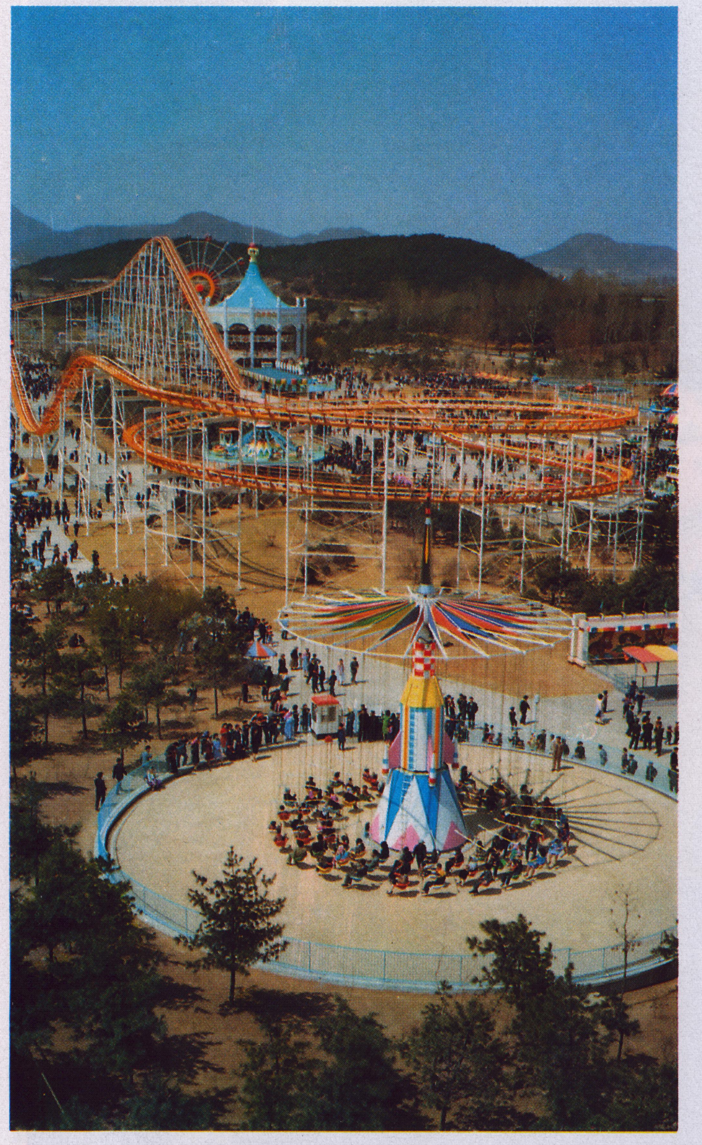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관철하기 위하여 크나큰 심려와 로고를 기울이고

(17페지에 계속)



새로 건설된 제2계단 창광거리를 돌아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1985. 8. 9)

수도 건설과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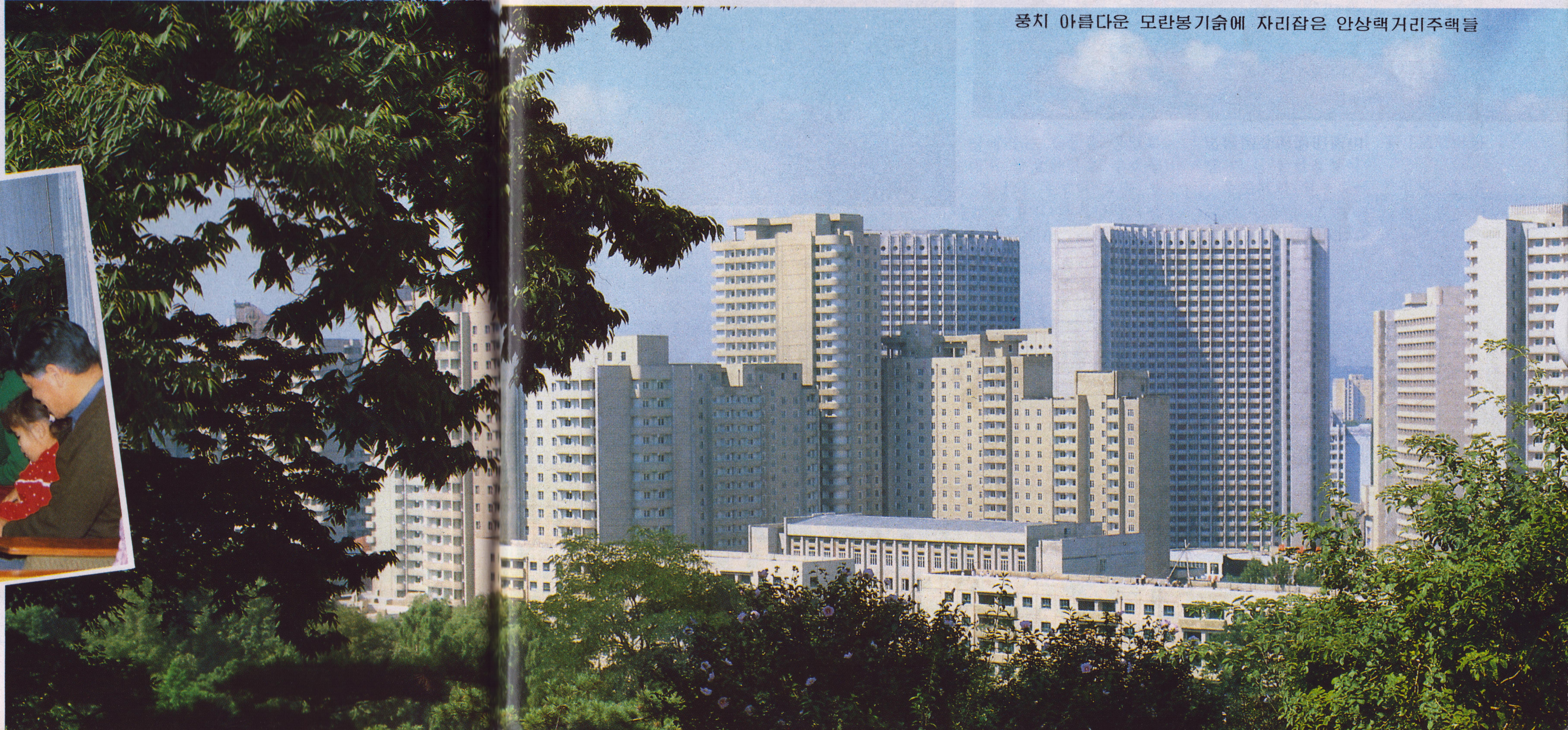
만경대 유희장의 일부



광복거리에는 현대적으로 건설된 원형주택들도 있다



6개월동안에 일떠선 창광거리주택들



풍치 아름다운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안상택거리주택들



새집들이를 한 가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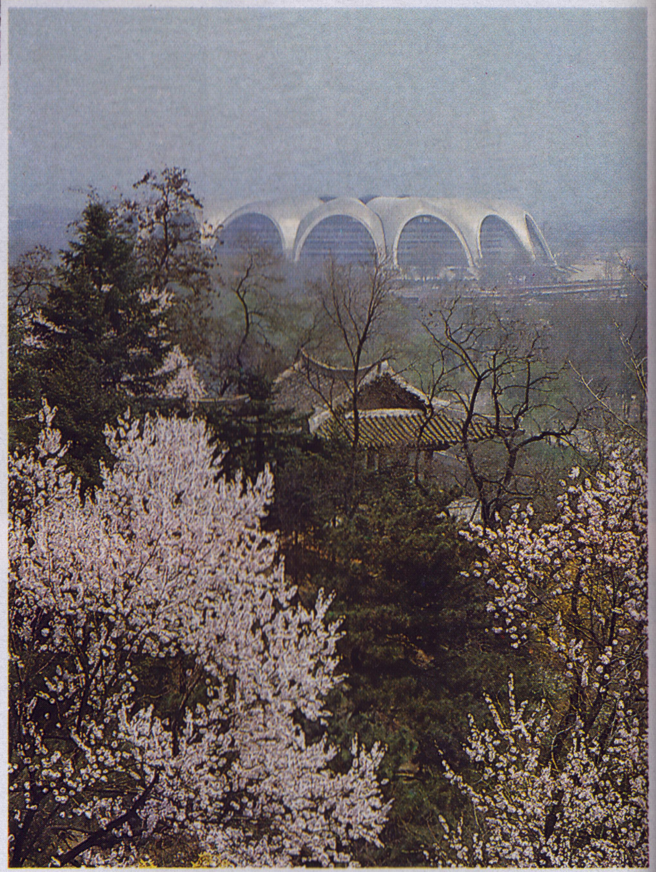


통일거리에 일떠선 살림집들도 2년기간에 건설되였다
(1992년 4월 완공)



만경대학생소년궁전

5월1일경기장





1980년 11월에 착공하여 2년동안에 완공된 문수거리 일부

본사기자 김종수

수도 평양에서는 년대와 년대를 이어 살림집들이 대규모적으로 건설되고있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부터 힘있게 진행된 새 거리들과 살림집건설은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있다.

하기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그야말로 조선은 《건설의 나라》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최근년간에 건설된 수도의 살림집거리들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건설에서 높은 속도가 창조되여오던 지난 건설의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게 된다.

수도건설의 전성기는 《속도전의 포성》이 울린후부터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74년 2월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시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속도전은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속도전의 불길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수도의 살림집건설에서도 70년대를 넘어 80년대, 90년대에로 이어오며 속도전의 생활력은 힘있게 과시되였다.

1950년대말부터 1960년대에 들어서며 살림집건설에서 창조되였던 《평양속도》는 살림집 한세대를 14분동안에 조립하는것이였다면 1970년대말에 와서는 7분동안에 조립하는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였다. 그때 건설자들은 일제가 7년간 건설한 화신백화점보다 25배나 더 큰 평양제1백화점도 1년이 채 못되는 사이에 건설하였다.

그러나 수도건설의 대전성기는 80년대부터였다.

1980년 11월에 1만 7,000여세대의 주택건설에 착공한 문수거리건설자들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를 완공하였으며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창광거리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은 그를 6개월동안에 일떠세웠다.

수도건설자들은 버드나무거리, 안상택거리, 천리마거리2단계 건설을 완공한데 이어 1989년 4월까지 광복거리1단계건설을 추진시켜 완공하였다.

이 시기에 건설된 살림집들은 모두가 개성이 뚜렷하고 건축양상에서 비반복적인 형태를 띤것들이였으며 그 규모가 전례없이 방대한것이다. 광복거리와 통일거리에 건설된 살림집들은 개개가 다 덩지가 크며 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건물들로 솟아났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도의 살림집건설에서는 《새로운 9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수도에서는 1992년초까지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5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대담한 작전이 펼쳐졌다. 광복거리 2단계와 통일거리에 일떠설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은 문수거리건설규모의 3배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건설대상이였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념원을 안고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120메터폭의 10여리 대도로를 축으로 하여 형성되는 통일거리는 90년대에 일떠서는 첫 기념비적새거리들중의 하나였다.

이 시기 당에서는 건설을 공업화, 현대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부재를 대형화하여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는것이라고 하면서 부재생산기지를 꾸리여 대형부재로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평양시건설총국 동구종합주택건설사업소 건설자들은 매일 4.2세대씩 조립완성하여 112세대의 살림집을 두달동안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은 1992년 4월에 완공되였다.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에 이어 1993년 7월 27일, 전승 40돐을 맞으며 수도에서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3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이 추진되였다.

3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은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속도》를 창조하는 사업이였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1년동안에 3만세대살림집건설은 공사 규모와 량에 있어서 5만세대건설에 못지 않는 방대한 대상이였다.

수도건설자들은 새 공법을 받아들이고 립체전을 벌려 골조공사를 앞당기면서 동시에 내부공사를 최고 80%까지 진행하였다. 그들은 속도전을 벌려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도 최고 3.3분에 한세대를 조립하는 새 기적을 낳았다.

특히 새로운 건설속도는 두단립체교차10다리건설에서 창조되였는데 이곳 건설자들은 수백메터의 다리를 한달남짓한기간에 완공하여 건설력사에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웠다.

그리하여 전승 40돐을 맞으며 수도에는 1년남짓한기간에 3만세대의 살림집이 준공되였던것이다.

수도의 건설속도를 목격한 외국의 한 이름있는 건설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건설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하루밤 자고나면 한층씩 올라가는데 나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소문난 건설장을 다 돌아보았지만 이런 건설속도는 처음 본다.》

그러나 그가 수도에 건설된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다 돌아보았더라면 더욱 놀랐을것이다.

속도전의 열풍속에 건설된 이 모든 건물들은 그 질이 또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만년대계의 창조물이다.

수도의 살림집건설은 수도건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인민대학습당과 여러 극장들, 경기장들 등 수도에 건설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의 수를 꼽자면 끝이 없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서해갑문과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태천발전소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산업건물들과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올랐는가?!

속도전의 기상이 계속 나래치고있는 수도의 살림집건설장마다에서는 앞으로도 시대를 빛내이는 살림집들이 련이어 일떠설것이다.

본사기자 로명준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3) 중에서

백마에 대한 추억

나는 원래 이 삽화를 세상에 공개할 의향이 없었다. 인생 80을 총총히 더듬어보는 이 글에서 군마 한마리가 차지하는 몫이란 사실 보잘것없는것이다. 회억해야 할 영웅들은 얼마나 많고 은인들은 얼마나 많으며 사연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 일화를 나만 아는 비밀로 묻어두기에는 백마에 대한 나의 추억이 너무도 애틋하고 그것을 소개하지 않고는 못견딜 충동이 너무도 강렬한것 같다. 더구나 그 백마는 많은 사람들과 잊을래야 잊을수 없게 인정적으로 굳게 얽혀져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비밀로 남겨두기에는 아까운 일이다.

…

얼마후 나에게는 또 다른 한마리의 백마가 생기였다. 그 백마는 대황구전투때 우리 부대가 일본군부대를 치고 로획한 말이였다. 전각루전투에서 로획한 말이라고 회상하는 투사들도 있다는데 나는 구태여 그것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 어디에서 생긴 말인가 하는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것은 우리의 수중에 일본군장교가 타고다니던 말이 생겼다는데 있고 그 말이 만사람의 인기를 끄는 나무랄데 없는 군마라는데 있는것이다.

…

하도 오래전 일이여서 자질구레한 일화들은 거의다 잊어졌다. 그러나 몇가지 장면만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내 눈앞에서 살아움직이고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오백룡이 소대장으로 활동할 때였다. 나는 라자구지방에 가서 군중정치공작을 하기 위하여 오백룡소대를 데리고 마촌을 떠났다. 나의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2~3시간밖에 안되였다. 전투를 하고 훈련을 하고 군중과의 사업까지 하고나면 보통 밤 1시나 2시가 되여서야 잠자리에 들수 있었는데 일이 정 밀릴 때면 밤을 꼬박 밝히였다.

일행이 쟈피거우령에 들어선 순간 나는 말안장우에서 말뚝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 전날밤 마촌인가 십리평에서 밤샘을 한 후과였을것이다. 백마가 소대의 앞장에 있었으므로 일행중 내가 존다는것을 간파한 대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런데 신기한것은 소대가 쟈피거우령을 넘을 때부터 말의 걸음걸이가 달라지더라는것이였다. 이것을 감촉한 사람이 바로 오백룡소대장이였다.

백마는 앞발을 딱 가두어붙이고 조심조심 올리막길을 톺아올랐는데 오백룡이 갑갑해서 짜증을 낼 지경으로 도무지 길을 축내지 못하였다.

(이 영국신사 같은 말이 오늘은 참 별나게도 걷는걸.)

오백룡의 속생각이였다.

백마는 내리막길에서도 뒤발을 가두어붙이고 힘들게 령을 내리였다. 그러는 사이에 대렬은 멀리까지 앞서나갔다. 뒤에는 백마와 나, 오백룡 셋만 남게 되였다. 오백룡은 내가 걱정되여 줄곧 초초한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상관이 앉아있는 말에 채찍질을 할수가 없어 속을 조이기만 하였다.

백마는 령길을 다 내리자 쟈피거우강가에 가로놓여있는 진대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진대나무 한대쯤은 헐하게 살짝 뛰여넘던 명마가 별치않은 장애물앞에서 머뭇거리는것을 보자 오백룡은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백마가 저렇게 게으름을 부리는데 왜 욕도 안하고 재촉조차 하지 않을가?)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잔등에 앉아있는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내가 졸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놈 참 명물인데!》

소대장은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떠들었다.

백마는 앞발로 진대나무를 딱딱 소리가 나게 두드렸다.

그 소리와 함께 나는 잠에서 깨여났다.

《이 백마한테 오늘은 특식을 차려줍시다.》

오백룡은 싱글벙글하면서 말갈기를 쓰다듬었다. 내가 조는사이에 무슨 천지개벽이라도 생긴 모양인가.

《갑자기 특식은 왜?》

오백룡은 백마가 쟈피거우령을 어떻게 넘었고 또 진대나무앞에까지 와서 어떻게 주춤거리였는가를 홍에겨워 말했다.

…

이처럼 훌륭한 군마를 남에게 줄번한 일도 있었다고 하면 아마 독자들은 잘 믿지 않을수도 있을것이다.

내가 그 백마와의 리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불가피한 사정이 제기된것은 오백룡이네 대원들과 함께 골방령인가 어디에 나가서 지방공작을 하고있을 때였다. 보리고개를 넘기는 시절이라 마을사람들은 그때 농량이 딸려 고생을 하고있었다.

…

충실한 나의 대원들은 백마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다. 부대의 활동정황이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그들은 주변부락들과 적구에 종횡무진으로 드나들며 백마에게 먹일 귀밀이나 소금 같은것을 제때제때에 구해오군하였다. 어떤 대원들은 가을걷이가 끝난 포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주이도 하였다. 한이삭, 두이삭 힘들게 모은 낟알들을 바수어 군복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는 말에게 먹이는 대원들도 있었다. 백마는 그런 대원들이 가까이에 나타날 때마다 주둥이로 군복주머니를 툭툭 건드리군하였다.

…


오백룡

나는 채 완쾌되지 않은 배장근통때문에 몇달 더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나의 충성스러운 애마를 농민들에게 주기로 결심하였다. 백마가 반유격구 같은데 가서 역축으로 리용된다면 전장에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 죽을 념려도 없을것이였다. 처음에는 나에게 백마를 보내준 십리평의 머슴군출신 로인에게 나의 애마를 주면 어떨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로인이 별스레 생각하며 섭섭해할것 같아 그만두었다.

나는 풍기사령을 불러다가 남아있는 사료를 다 털어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백마의 그날 점심급식은 특식으로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오늘은 저축했던 사료가운데서 제일 좋은것으로 백마를 배불리 먹이시오. 오후에는 그 백마를 산너머 부락에 가지고 가서 그 마을 반일회장에게 넘겨주어야겠소. 말이 떠날 때 남은 사료도 몽땅 가지고 가도록 하는것이 좋겠소. 역축이 없이 살아가는 제일 가난한 집에 백마를 주라고 하시오.》

《알겠습니다.》

풍기사령은 이런 대답을 하고나서도 방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머밋머밋하였다.

《어서 나가서 명령을 집행하시오.》

나는 그가 망설이는것을 보고 엄하게 독촉하였다.

풍기사령이 나간 다음 곰곰히 생각해보니 백마를 위해서 내가 너무 몰인정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가 들었다. 나는 백마와 마지막작별이라도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여느날과 다름없이 쇠빗과 털빗으로 여기저기를 긁어주고 손으로 갈기털을 몇십번이고 쓰다듬어주었다. 그 말과 함께 걸어온 수천리로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를 여겨보던 백마의 눈에서 눈물이 뚤렁뚤렁 떨어지고있었던것이다. 나는 놀랐다. 이 애마가 어떻게 나와의 리별을 예감하였을가. 백마는 그때 분명 나의 얼굴에서 자기에게 가해진 선고가 무엇인가를 알고있었던것 같았다.

나는 그때 백마의 비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채찍맛을 보이면서 아무렇게나 부려먹는 미물들의 세계에도 인간을 감동시키는 미덕이 존재하며 그 미덕은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준다는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

그런데 풍기사령은 저녁시간이 다되여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대신 날이 어슬어슬해질무렵에 오백룡소대장이 밥상을 들고 내앞에 나타나 밑도끝도 없이 용서를 빌었다.

《규률을 위반했으니 저를 처벌해주십시오.》

나는 그가 무엇을 념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수 없었다.

《규률을 위반하다니?》

《제가 보고도 하지 않고 목재소를 하나 쳤습니다.》

오백룡은 그 습격의 경위를 성급하게 엮어대기 시작했다.

아침에 나에게서 이웃마을에 백마를 보내라는 과업을 받고 소대로 돌아간 풍기사령은 오백룡을 만나자 여사여사한 지시가 내렸는데 다른 명령이라면 다 집행하겠으나 그 명령이야 어떻게 감히 집행하겠는가고 하면서 무슨 방도가 없겠는지 좀 의논해보자고 하였다.

오백룡은 풍기사령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대원들이 백마때문에 수고를 하는것이 미안해서 대장동지가 그런 명령을 내리신것 같은데 그 백마를 어떻게 대장동지곁에서 떼여놓는단 말이요. 대장동지는 상기두 배장근통때문에 신고하고계시지 않소. 우리가 사료라도 많이 장만해놓고 강짜를 쓰면 대장동지의 결심이 달라질수도 있으니 풍기사령동무는 말을 이웃마을로 보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곳에 매두어야겠소. 그동안 나는 친화목재소에 가서 사료를 구해오겠소. 내가 어디로 갔다는것은 보고하지 말아주오.》

…

나는 오백룡이 보고를 끝내자 밥상을 한옆으로 밀어놓고 밖으로 나갔다. 과연 그가 말한대로 백마는 이웃마을의 령세농민한테 가있는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내 눈을 속이느라고 대피시켰던 장소에서 돌아와 마구간에 서있었다.

백마는 코김을 크게 내불고나서 감사라도 보내듯 내쪽을 향해 머리를 몇번 주억거리였다.

나는 눈굽이 찡 저려났다. 백마의 존재를 몸가까이에서 느낄수 있는것은 어쨌든 기분좋은 일이였다.

…

《대장동지, 저를 처벌해도 좋고 강직시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백룡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백마를 어데도 보낼수 없다는것을 알아주기바랍니다!》

그는 이런 어마어마한 최후통첩을 하고나서 큰 전쟁이라도 치르고난 사람처럼 씩 하고 코김을 크게 내불었다.

생각같아서는 오백룡을 붙안고 《고맙소!》, 《고맙소!》 하면서 등이라도 두드려주고싶었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생사를 가리지 않고 불과 물 속에라도 뛰여드는 이 대담무쌍한 소대장의 충직성에 나는 한두번만 감탄한것이 아니였다. 그는 까막눈이였던 자기에게 조선말자모를 배워준 사람도 **김일성**이고 처음으로 세상물정을 알게 해준 사람도 **김일성**이라고 하면서 나를 친형처럼 따르고 존경하였다.

나도 그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었다. 내가

손때를 묻혀 키운 지휘관이 오늘은 나의 백마를 위해 한몸을 내대여 목재소를 치고 돌아온것이다.

그러나 상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의대로 사료공작을 나간것은 엄중한 규률위반행위였다. 이것을 용서해준다면 앞으로 더 큰 탈선도 할수 있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때에 지휘관은 결심을 잘 채택해야 하는것이다.

오백룡은 김이 몰몰 피여오르는 내 밥상의 국그릇을 내려다보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국이 다 식겠습니다. 어서 드시고 저에게 처벌을 주십시오.》

나는 불시에 눈굽이 확 달아올랐다. 처벌을 달라고 물러가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어째서인지 내 목을 꽉 메게 하였다.

…

《소대장동무, 동무가 나의 백마를 위해 적구에까지 갔다온것은 고마운 일이요. 그렇지만 규률을 위반한것은 지휘관으로서 두번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엄중한 과오요.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되풀이돼서는 안되겠소. 동무들의 심정을 잘 알았으니 백마는 다른데 보내지 않겠소. 어떻소, 만족하오?》

내가 이렇게 묻자 오백룡은 벌쭉 웃으면서 《네, 만족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아이들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숙소로 돌아갔다.

나는 이렇게 몇마디의 지적으로 사건을 간단히 매듭지었다.

백마는 그후에도 나를 위해 충실하게 봉사하였다.

소왕청방어전투가 한창 벌어질 때에 있은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수 없다. 그때 적들은 리수구막바지인 황가리골일대에까지 기여들어와 유격구인민들을 살륙하였다. 산과 들과 골짜기는 주검으로 덮이고 살림집들은 모두 재가 되였다.

나는 백마를 타고 비발치는 탄막을 누비며 매일같이 전투를 지휘하였다. 어제 뾰족산에서 방어전을 조직했다면 오늘은 마반산에 가서 적의 돌격을 좌절시키고 래일은 또 리수구뒤고지에서 인민들의 대피를 엄호하는 식으로 동분서주하는 과정에 아슬아슬한 고비도 여러번 넘기였다.

얼마나 많은 탄우가 쏟아졌던지 나의 외투안에 댄 털에까지 불이 달리였다. 외투에 달린 불은 단번에 나를 휘감아버릴수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감촉하지 못하였다. 백마가 바람을 맞받아 달리다나니 불붙는 외투자락이 뒤로만 휘날렸기때문이다.

내가 외투에 불이 달렸다고 느낀것은 백마가 바람을 등지고 달리기 시작한 때였다. 불길은 뒤가 아니라 앞으로 날리고있었다. 하지만 나는 벌써 외투를 벗어내칠 시간적여유가 없었다. 달리는 말에서 뛰여내리다가는 바위에 굴러 생명이 위험할수 있었고 심한 타박상을 입을수도 있었다.

이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비호같이 달리던 나의 백마는 움푹하게 패워들어간 눈구뎅이앞에서 속력을 늦추며 슬그머니 앞발을 접고 옆으로 쓰러지는것이였다. 나는 말에서 떨어져 눈구뎅이속으로 굴러들어갔다. 눈속에 파묻혀 몸을 이리저리 굴리는 사이에 외투를 태우고 군복에까지 달렸던 불은 저절로 꺼졌다.

백마의 두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있었다.

백마가 아니였더라면 나는 그날 생명을 건지지 못했을것이다. 설사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죽음에 못지 않은 참담한 화상을 면치 못하였을것이다.

나는 그때에도 백마의 뛰여난 감각과 신통력을 두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내몸에 불이 달렸다는것을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챘을가? 도저히 해명할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나는 지금도 그 비결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 백마의 비상한 판단력은 설사 생체적우점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다리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기 주인을 구조하는 그 놀라운 헌신성은 어디에서 출발점을 찾겠는가.

세상에는 충견애마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것을 충마애견이라는 말로 고치고싶은 생각이 든다.

나의 백마는 유격구인민의 총애를 받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였다. 백마에 대한 소문은 소왕청주변의 반유격구들과 적통치구역의 인민들속에도 널리 스며들어갔다.

…

나와 함께 근 2년동안 궂은길 마른길 가리지 않고 편자를 갈아대며 수천리길을 달린 백마는 1934년 겨울 소왕청에서 죽었다.

1차 북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니 백마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전우들이 만들어주었다는 백마의 무덤만이 쓸쓸하게 남아있었다. 그때의 그 슬픈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애석해하는것을 보고 대원들은 백마를 위해 조총을 울리자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총이나 울려선 뭘하겠는가, 백마는 살아있을 때도 총성속에서 소란스러운 세월을 보냈다, 죽어서나 안식을 맛보게 총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도 백마의 무덤이 왕청 어디엔가 남아있을것이다.

…

그러나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여나 그 불길속에서 일생을 마친 백마는 회상기가 아니라 한폭의 자그마한 유화가 되여 조선혁명박물관에 나타났다.

…

나는 나의 충실한 전령병들과 백마가 그리워질 때마다 이따금씩 박물관에 나가보군하였다.

80고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추억속에서만 종종 그려볼뿐이다. 그 충실한 백마의 모습이 오늘도 내 눈앞에서 60년전처럼 생생하게 살아움직이고있다.

그 백마가 만일 사람이라면 충신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충신이라는 평가를 받을것이다.

《김정일, 그이는 주체의 타수》

오늘 세계 인민들속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그이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최근 2년동안에만도 그이를 칭송하는 책들과 글들이 씌여졌는데 시만도 200여편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창작발표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칭송하여 쓴 시들가운데는 정계,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이름있는 작가, 시인들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로동자, 농민 그리고 청년학생들도 있다.

필자들은 시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끝없이 흠모하며 언제나 뵈옵고싶은 간절한 소원을 절절히 노래하였다.

짐바브웨인사 마구투스와는 시 《뵙고싶어라》에서 만나면 순간에 매혹되고 헤여지면 다시 뵙고싶은 이,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간절해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그리움을 시적운률에 담았으며 꽁고문화예술성 과장 느따리 죠세프는 시 《**김정일** 그이는 향도의 별》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 계시며 모두의 마음속에 계신다고 노래하였다.

필자들은 또한 시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자주시대를 밝게 비치는 향도성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방글라데슈사회계인사 불 불칸마호부브는 시 《친애하는 지도자 만세!》에서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동방의 하늘가에 높이 솟아 빛나는 희망의 등대로 칭송하였으며 애급인사 엘싸이드 아브델 카위 무싸도 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그이는 주체의 타수》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그이를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였다.

필자들은 또한 시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그이께서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고있다.

베닌의 지꼬 도미니꼬는 시 《**김정일**원수님께 영광을 드린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고 그 사상으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령도하고계신다고 하면서 그이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의 힘은 불패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네팔작가 디네스 쁘라사드 슈레타는 《친애하는 **김정일**》이라는 자기의 시에서 조선민족의 별로 높이 솟아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의 상상봉에 높이 서시여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조선을 광명한 미래에로 이끌고 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가하였다.

당신의 비범한 예지속에
조선의 새 모습 비껴있고
당신께서 바치시는 로고에
세인들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나니
…

탄자니아인사 에이 므와이꼬 몰레는 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인민의 영광》에서 현명한 령도, 정력적인 지도로 문학예술의 새 전성기를 펼치시고 정치, 경제, 군사,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변혁을 창조하시여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신 그이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분이시라고 노래하였다.

시들에는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승리와 영광의 길이며 그이따라 나아갈 때 희망찬 미래가 밝아온다는 굳은 확신과 그이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결의를 담고있다.

일본사회계 인사 니시무라 다쯔미는 시 《한알의 씨앗이 되리》에서 온 세계 자주위업의 진두에 서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배우는 길은 새 시대의 빛나는 미래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썼다.

그리고 나미비아학계 인사 싸부엘 에르윈 하제브의 시 《백두산의 광명성》, 짐바브웨인사 르니 마싼고의 시 《축하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잠비아의 아킴 싸무콘다의 시 《**김정일**동지따라 앞으로》 등 여러편의 시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사회주의위업은 승리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이 실현될것이라는 확신과 그이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모진 광풍도 맞받아나아갈 필승의 신념을 노래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쎄르비아작가동맹 위원장 요완 슈뚤라는 시 《**김정일**동지를 따라 걸으리라》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광풍을 뚫고 그이께서 가시는
길
우리 웃으며 그 길을 걸으리라
또다시 머리를 쳐드는 반동의
무리들을 맞받아
불의의 어지러운 먹장구름을
밀어제끼며
필승의 위력한 무기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을
안고
우리 그이를 따라 걸으리라

이처럼 세계 수많은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창작가들은 **김정일**동지를 높이 칭송하였다.

언어와 피부색, 정견과 신앙, 사는곳은 서로 달라도 시대의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려는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의 분출로 씌여진 시들은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메아리로 높이높이 울려퍼질것이다.

(8페지에서 계속)

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하여 해외동포들은 일치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조국의 통일과 륭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해야 할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려와 로고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애국애족사업에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칠것을 굳게 맹세한다.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민족의 운명이시며 천하제일명장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실것을 삼가 축원한다.

중국 료녕성 단동시 정성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리인모동지가 헌시와 가사를 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고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 리인모동지는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그이께 헌시와 가사를 지어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올린 헌시와 가사는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올립니다

1. 나의 운명을 두고

죽은자는 산자로 될수 없나이다
지옥행은 락원행으로 바뀔수 없나이다
하건만 나의 운명은
인생의 이 궤도를 부정하였나이다

저는 다 죽었던 사람
남쪽의 옥방에서 이름석자도 없이
수인번호로 불리우던 몸
숨쉬는 화석이였습니다
시들어버린 고엽이였습니다

허나 내 오늘
지옥의 관문에서 벗어나
세상이 다 아는 리인모로 되였습니다
인생의 청엽으로 생기가 넘칩니다

이런 행운을 두고
남쪽사람들은 말합니다
신화속의 《운명의 신》이
베풀어준 은총이라고

아니옵니다
저에게 행운을 주신분은
위대한 인간이신
은혜로운 **김정일**, 당신이옵니다

정녕 넘지 못할 분단선을 뚫고
죽은 몸을 꽃수레에 태워오신
당신이옵니다
수령님곁에 저를 세워주시고
친하 슬하에도 불러주신
당신이옵니다

하기에 내 오늘
운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저의 운명은 자애로운 당신
민족과 인류의 운명도 위대한 당신

저는 심장으로 말합니다
거룩하신 **김정일**, 당신은
진정 운명의 《신》이십니다
둘도 없는 우리 운명의 구세주
이십니다

2. 사랑에 대한 생각

남쪽의 차디찬 감방에서
홑옷을 걸치고 떨던 몸
지금은 따스한 이불을 덮고
편히 침대에 누워 자다가도
문득 깨여나 생각하는것
내 이 사랑을 다 아는가

지팽이인생으로 시들던 이 몸
오늘 손자의 손목을 잡고
정다운 내 집 정원을 거닐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생각하는것
내 이 사랑을 다 아는것인가

사랑을 받기는 쉬워도
사랑을 알기는 어려운것
사랑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사랑이 클수록
더구나 다 알기란 쉽지 않은것

40여년세월
즙이 없는 삭막한 남쪽에서
사랑과 담을 쌓은 악의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조차 잊어버린 저였습니다

그러나 분단선에서부터 목이 메였습니다
사랑과 사랑이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미처 알지 못한 그 사랑
어디서 오는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꼈습니다
너무도 뜨거워 너무도 고마워
자애로운 **김정일**, 당신의 사랑인줄

내 숨쉬는 공기에
내 몸에 비치는 해빛에
당신의 사랑이 꽉 차있습니다
내 집 앞방에도 당신의 사랑
뒤방에도 당신의 사랑
웃층에도 아래층에도
당신의 사랑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끊임없이 아껴주시고
내세워주고싶으신 그 마음속에
천하를 다 주고도 또 주고싶어하시는
그 자애속에…

제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큰 사랑도 있는가고
사랑밖에 밀려났던 이 몸
70고개를 넘어선 오늘에야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늦게나마 알고 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이 늙은 몸도
고마워 울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조국이 무엇이고 혁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리기도 모르고 깨끗하게
살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칼도 이기게 하는 사랑이옵니다

그래서 쉽게 외울수 없는 사랑
그래서 가볍게 받을수 없는 사랑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열렬한 사랑의 인간 당신은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시옵니다

3. 신념과 의지의 찬가

저를 신념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 어찌 신념의 화신이겠습니까
죽어도 못버릴 나의 신념
그것은 **김정일**,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저를 의지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의지의 화신이겠습니까
숨져도 꺾이지 않을 나의 의지
그것은 **김정일**,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념이라 함은
세상에서 가장 굳센 의지라 함은
그것은 위대한 강철의 인간
김정일, 당신의것이옵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당신의 기질을 받은 저입니다
당신의 숨결을 받은
리인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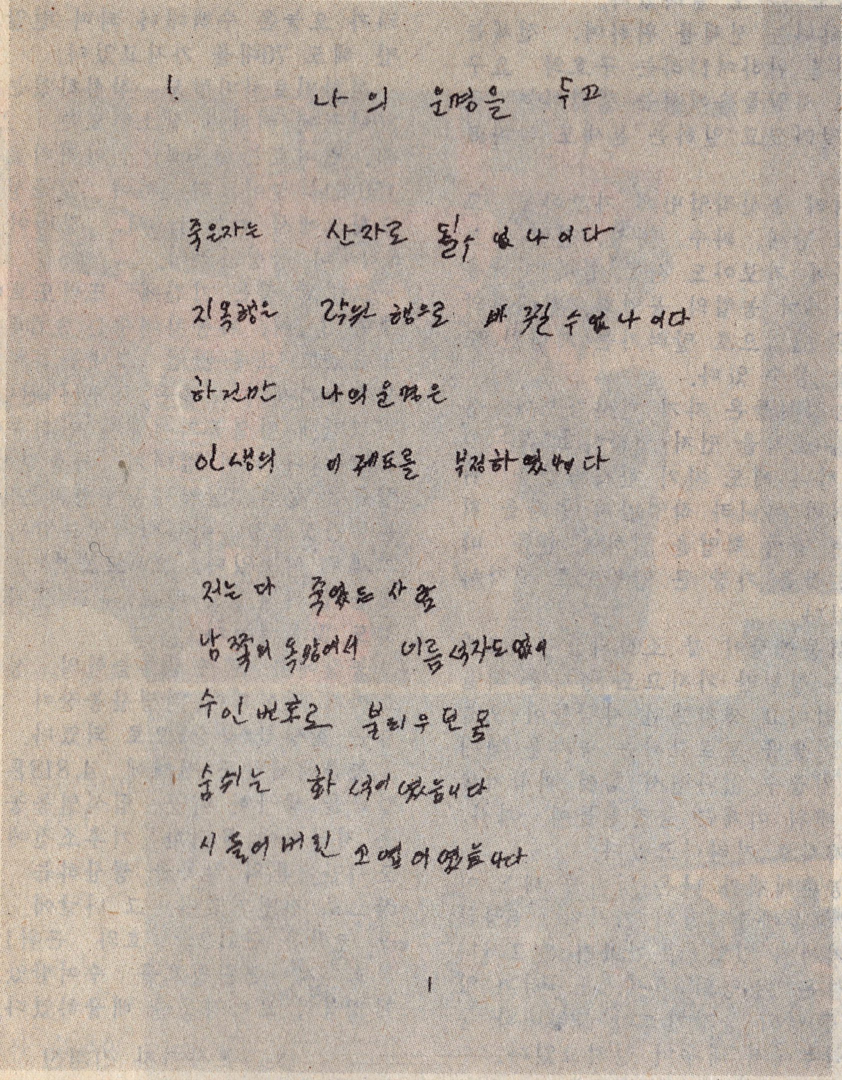
유혹의 전향문이 피롭힐 때마다
내 심장속에 계신분은 어버이수령님
불사의 힘으로 나를 지켜주신분은
백두산의 아들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해가 바뀌여 머리가 희여져도
언제나 당신은 나의 하늘이였습니다
그래서 30대 청춘기에도 그 신념
그래서 70대 황혼기에도 그 의지

당신은 강하십니다
강하여 언제나 이기십니다
만난을 웃음으로 이기시고
천지를 한손에 다스리시는 장군이옵니다

내 똑똑히 보았습니다
천하제일장군인 당신이 계시여 무적인
강한 신념과 의지의 우리 공화국을
언제나 이기는 기질의 인민을
언제나 이기는데 습관된 군민을

당신의 신념으로 력사가 흐르고
당신의 의지로 지구가 돌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이시여
참된 신념과 의지의 꽃다발을
이 로병은 영명한 당신께 드리옵니다


1. 나의 운명을 두고

죽은자는 산자로 될수 없나이다
지옥행은 락원행으로 바뀔수 없나이다
하건만 나의 운명은
인생의 이 궤도를 부정하였나이다

저는 다 죽었던 사람
남쪽의 옥방에서 이름석자도 없이
수인번호로 불리우던 몸
숨쉬는 화석이였습니다
시들어버린 고엽이였습니다

1

가사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1. 백두의 넋으로 광풍을 부시고
   역풍을 길들인 **김정일**장군
   당신만 있으면 고난이 무어냐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2. 광폭의 정치로 천만을 이끌어
   기적을 창조한 **김정일**장군
   당신만 있으면 역경이 무어냐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3. 일심의 대군단 강철로 다지고
   보검을 안겨준 **김정일**장군
   당신만 있으면 대적이 무어냐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1993년 11월

당신의 로병, 종군기자
리인모 올립니다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립석협동농장

고국땅 평안남도 문덕군 읍에서 서쪽으로 30리가량 가면 열두삼천리벌 한가운데 립석협동농장이 자리잡고있다.

립석이란 문자그대로 원시인들이 세웠다는 커다란 돌이 있는곳이라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해방(1945. 8)전만 해도 여기는 사람못살고장으로 알려졌던 곳이다.

집이 있었다면 네기둥과 벽을 세운 그런 집이 아니라 떼장을 네모지게 떠다 벽을 쌓고 갈대를 엮어씌운 초가집, 《떼장집》들이였으며 마시는 물이란 웅뎅이에 고인 마타리물뿐이였다. 그 물을 마시고 몹쓸 토질병에 걸려도 병원하나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람들은 40고개를 넘기지 못했다고 한다.

하여 살림을 폈던 사람들이 원한을 안고 떠나가던곳이지만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오늘은 농촌의 새 마을이 형성되고 수도화가 되여 불밝은 창가마다에서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 농장마을을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이후에 새로 생겨난 농촌《도시》라고들 한다.

지난날 초가집들만이 올망졸망 들어앉았던 이곳에 4~6층짜리 문화주택들과 2층짜리 농촌문화주택들이 줄지어 들어앉아 마치도 도시를 방불케 하고있다.

립석협동농장 마을 한가운데는 연건평이 6,000여평방메터나 되는 4층짜리 콩크리트학교건물과 내과, 외과, 산과, 소아과, 고려치료과, 구강과, 렌트겐과를 가지고있는 리인민병원, 목욕탕, 리발소, 양복점, 미용, 사진관 각종 수리소, 제분소 등 편의봉사망건물들, 두개의 상점, 1,800여평방메터의 문화회관건물이 주택들과 함께 자리잡고있다.

이미 뻐스화가 실현된데다가 철길까지 놓이고 멀지 않은곳에 역까지 생겼으니 참으로 농촌테제는 천지개벽을 가져온셈이다.

나라에서 보내준 사랑의 통근뻐스를 타고 일터로 오가고 저녁이면 불밝은 문화회관에 모여 악기를 타며 마음껏 춤과 노래로 즐기는 립석농장원들, 그들의 생활은 참으로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할만큼 몰라보게 달라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마을의 면모만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까지도 달라졌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의 요구대로 사람들속에서는 생각하는 품도 달라졌고 일하는 본새도 달라졌다.

여러 농산작업반에 가보아도 그렇고 남새, 과수, 축산, 잠업, 보수반에 가보아도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의 높은 언덕으로 달려가는 자랑찬 모습을 볼수 있다.

농장원들은 자기 한사람보다 집단과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자기 한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작업반과 농장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몸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있다.

협동농장이 갓 조직되였던 그때에는 경험만 가지고도 농사를 지을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기술을 모르고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다면서 힘껏 과학기술을 배워 이제는 농장원들이 기사, 준기사로 자라나고있다.

농촌테제가 나온 당시만 해도 이곳 농장에는 1명의 기사와 8명의 준기사가 있었을뿐이였다. 그러나 오늘은 286명의 기사, 준기사가 있고 70명의 농장원들이 농업대학 통신학부에서 배우며 일하고있다.

농장에 19개의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이 있고 일하면서 배워 농업기술인재로 자라난 사람들의 수가 농촌테제발표 전해에 비해 31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곳 사람들의 변모를 잘 말해주고있다.

립석리의 변모는 그뿐이 아니다.

30년전만 해도 108정보의 천수답을 가지고있던 이곳 농장이 토지정리사업과 수리화를 위한 투쟁을 벌려 다락밭, 다락논은 없어지고 수리안전답으로, 기계화포전으로 전변되였으며 전기화가 완성되여 손로동이 동력에 의한 기계로동으로 되고있다.

이곳 농장의 동력설비만 보아도 1964년에 8개밖에 안되던 양수기모타가 오늘은 수백대나 되며 변압기만 해도 70대를 가지고있다.

화학비료시비량도 장성하였는데 30년전에 비하여 질소비료는 2.3배, 린비료는 3.6배, 카리비료는 150배나 늘어났다. 하여 알곡정당수확고에서 벼는 1.9배, 강냉이는 5.4배나 장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뜨락또르대수는 3.2배, 자동차대수는 3.6배로 늘어났고 그때 없던 모내는기계와 모뜨는기계가 오늘은 76대나 된다.

그밖에 련결농기계들이 여러종에 400여대나 되여 김매기, 가을걷이, 탈곡은 물론 말짱세울구멍파는일, 논두렁짓는일, 비닐박막씻는일까지 기계로 하고있다. 그러고보면 농장에는 없어진것도 많고 새로 생겨난것도 많은셈이다.

농장에는 년 수천톤능력의 정미소까지 건설되여 벼생산농장이 오늘은 쌀생산《공장》으로 되였다.

농촌테제발표 전해에 4,818톤의 알곡을 생산한 이곳 립석협동농장은 지난해에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1만여톤의 알곡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전변되였다. 그 나날에 이곳 농장은 근위2급칭호와 근위1급칭호, 계관근위칭호를 수여받았으며 3명의 로력영웅을 배출하였다.

본사기자 리경진



농장벌의 저녁





리 인민병원의 수술장



뜨락또르정비도 잘한다

본사기자 김광진



농장벌에서



낟알털기에 여념이 없는 농장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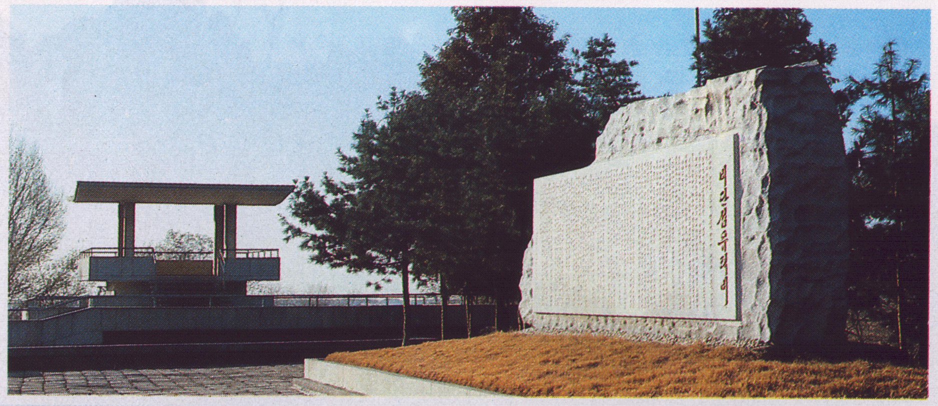
농장탁아소



년간결산분배장

—명승의 나라—

비단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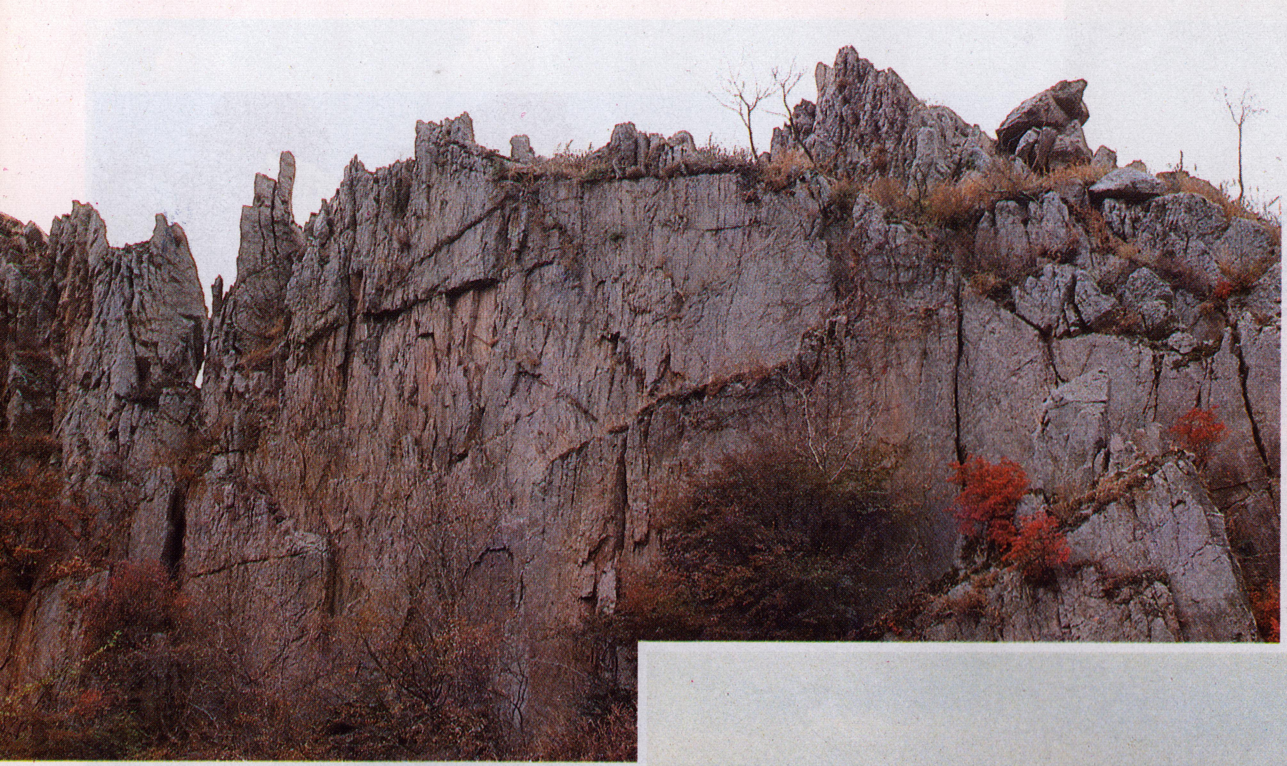
비단섬에 세워진 유래비



비단섬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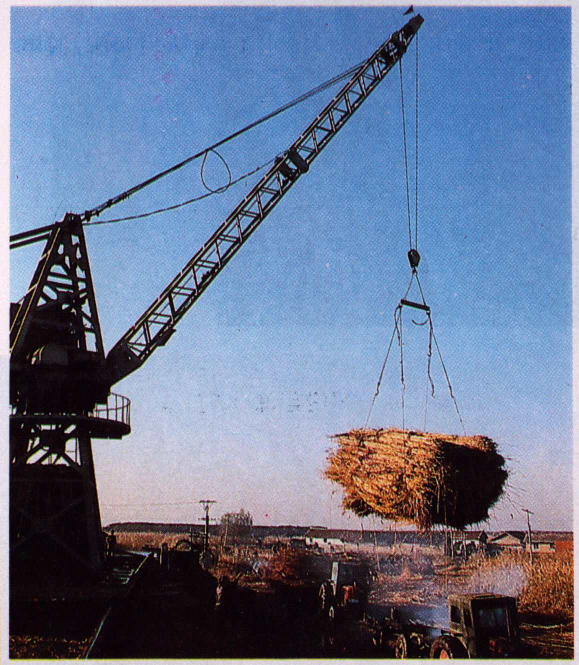


비단섬에 아침해 솟는다



비단섬의 기묘한 바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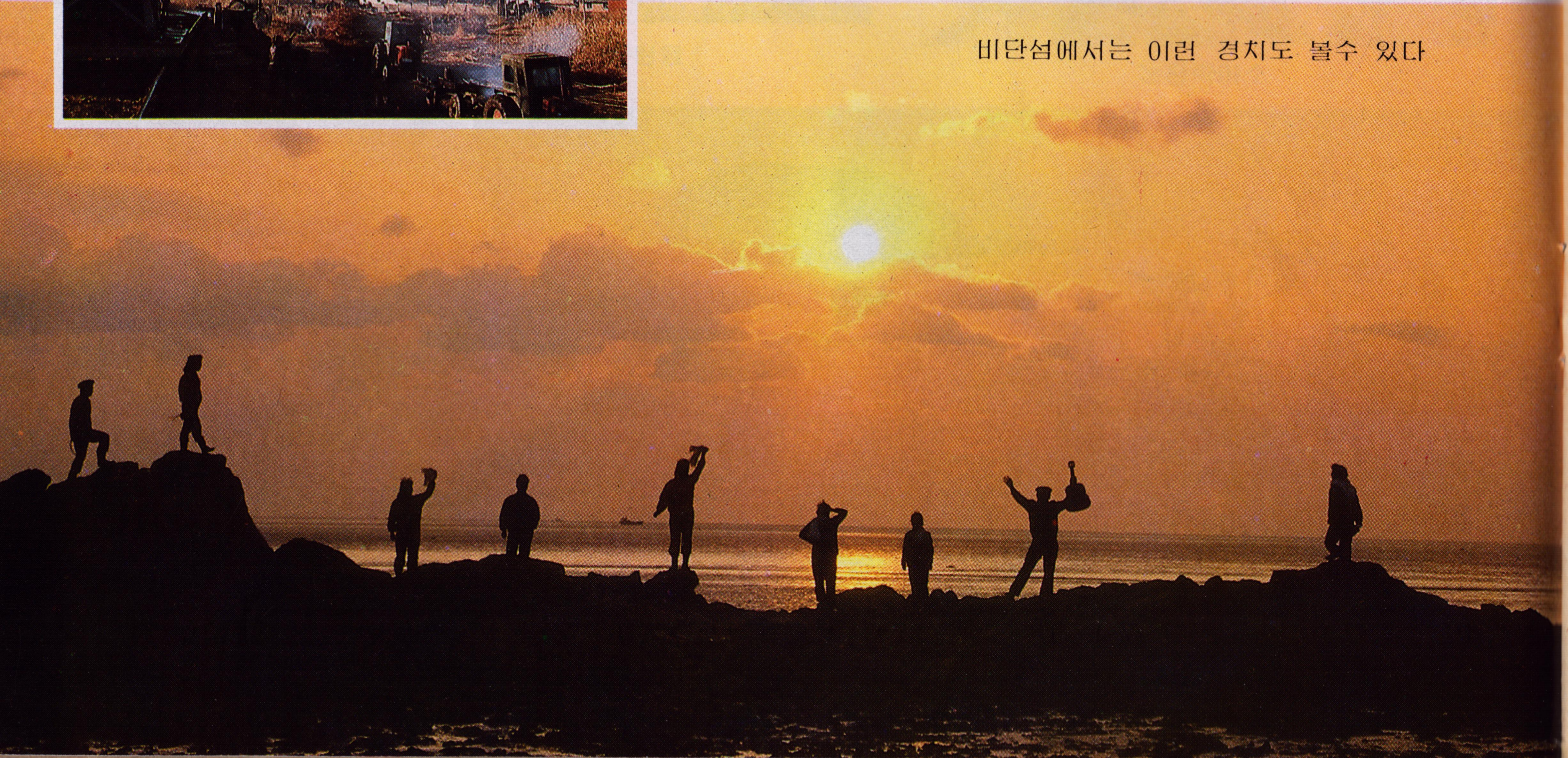
본사기자 황득범



갈을 제때에 거두어들인다



코끼리바위



비단섬에서는 이런 경치도 볼수 있다

비단섬은 조선서해의 북단 압록강하류에 자리잡고있다.

지리적으로 륙지와 퍼그나 멀리 떨어져있는 비단섬은 신도, 무명평(지금의 비단마을)을 비롯하여 수운도, 마안도, 장도, 싸리섬, 양도, 말도 등 1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이곳에서 제일 높은 신도의 삼각봉(해발 90.9메터)에 오르면 늠실거리는 서해의 망망한 수평선과 련결된 백리 푸른 갈바다가 한눈에 안겨온다.

재능있는 석공이 쪼아만든것 같은 코끼리바위며 그 생김새가 어찌보면 말잔등을 련상시키는 마안도, 그리고 제나름의 아름다움을 갖춘 장도와 싸리섬, 양도, 말도 등 섬들은 이곳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며 사람들의 시선을 쏠리게 한다.

장엄한 해돋이가 시작되는 아침도 좋지만 대보름 둥근달이 두둥실 솟아오를 때 물오리떼들이 물을 차며 날아오르는 저녁은 또 얼마나 좋은가.

그야말로 비단섬의 저녁은 황홀하기 그지없다.

봄기운이 서릴 때나 가을이 짙어질 때면 먼 려행길에 오른 기러기떼들도 비단섬이 하도 좋아 무리지어 날아들며 환성인양 저마끔 울어댄다.

휘영청 달밝은 밤 기러기떼들이 날아오고 날아가는 비단섬의 야경은 신비경의 세계 그대로이다.

자연의 풍경만이 아름다와서 좋은것은 결코 아니다. 그 자연을 길들이고 정복하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이 류다른 풍치를 이루어놓아 더더욱 좋다.

지난날 이고장에서는 가난과 풍랑에 부대끼는 사람들의 한숨이 꺼질줄 몰랐다. 류랑민들이 멋모르고 보짐을 풀어놓았다가는 더는 살수 없어 피눈물을 뿌리며 떠나군하던 불모지였다.

대부분의 섬들에는 집도 인적도 없었으며 쓸모없고 살곳도 못되여서 어느 누구도 이고장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 아득한 태고적부터 《무명평》으로 불리워온 땅!

바로 그러한 땅에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손길이 미치여 오늘은 자랑높은 《비단섬》으로, 만년재부의 대화학섬유원료기지로 전변되였다.

1956년 여름 몸소 서해의 사나운 풍랑을 헤치시며 이곳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듬성듬성 서있는 갈을 가리키시며 저 갈은 《비단》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이 말씀속에는 우리 인민을 더 잘 입히시려는 뜨거운 사랑과 이미전부터 이 지대의 넓은 간석지를 개간하여 풍만한 갈밭을 만들데 대해 무르익혀오신 원대한 구상이 어려있었다.

신도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득히 펼쳐진 간석지를 돌아보시면서 신도와 마안도에 이르는 여러개의 섬들을 하나의 뚝으로 둘러막고 거기서 얻어진 수천정보의 간석지에 화학섬유원료기지를 꾸릴데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그리고 이섬의 이름도 《비단섬》이라고 새로 지어주시였다.

이리하여 이곳에서는 신도와 무명평, 장도와 마안도를 둘러싸는 수백리 밀물막이뚝이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솟아났고 그에 따라 수천정보의 갈밭—《비단밭》을 얻어내는 기적이 창조되였으며 갈은 처음으로 야생식물로부터 비단원료인 재배식물로 되였다.

1966년 8월 비바람 휘몰아치는 궂은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이곳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진창길을 밟으시며 망원대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없이 펼쳐진 푸른 갈숲을 바라보시며 **이 갈밭이 얼마나 좋은 자연부원입니까… 애국주의가 다른데서 나오는것이 아니라 이런것을 사랑하는것이 애국주의입니다**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어제날의 무명평—오늘의 비단섬은 이렇게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조국의 지도우에 새 모습으로 태여났다.

바둑판처럼 규모있게 정리된 수천정보의 무연한 갈밭으로 관개물길을 따라 압록강물이 춤을 추며 흘러든다.

초여름이면 드넓은 온 섬이 푸른 주단인양 갈잎으로 깔리는데 종달새도 황홀한듯 하늘높이 날아예며 고운 목청으로 은방울을 굴리고 은백색갈꽃이 바람결에 실려 온 대지에 차넘쳐 설레일 때면 갈수확기들이 경쾌한 동음을 울리기 시작한다. 땅에서는 키높이 자란 살찐 갈대들이 련속 베여져 줄줄이 넘어지고 하늘에선 아름드리 갈단을 무겁게 물어올린 삭도들이 분주히 오가고…

참으로 버림받던 《무명평》, 그 세월에는 볼래야 볼수 없었던 새로운 경치, 변혁의 경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창조의 새 모습을 갖추고 솟아오른 비단섬은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뜻을 후손만대 길이 전하며 설레이리라.

그래서 내 나라 강산은 그 어디에 가보나 더더욱 아름답고 번영하는것이다.

본사기자 리영호

아시는지요?

가장 적당한 방안온도

살림방의 온도는 겨울철에 18~22도 정도가 좋다.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이보다 1~2도 정도 더 높은 온도가 알맞는다.

잠잘 때 방안의 온도는 보통때 방안온도보다 낮아야 건강에 좋다.

대체로 사람들이 옷을 입고 방안에서 시원한 감을 느끼면 18도 정도이고 훈훈하면 21도 정도이다.

방안온도와 바깥온도의 차이가 심하면 감기에 쉽게 걸릴수 있고 위생적으로도 나쁘다.

특히 방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조건에서는 방바닥온도를 적당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방바닥온도는 29~ 30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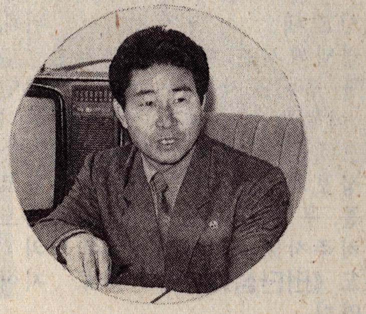
단층살림집에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것이 좋다.

농촌테제가 안아온 풍성한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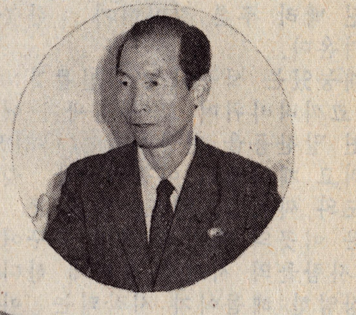
우리는 얼마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30돐을 맞으며 연단을 조직하였다. 그 일부를 여기에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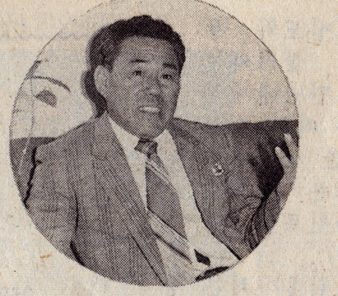
김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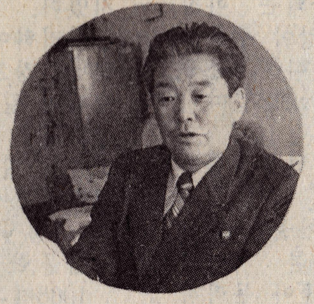
홍명렬



오호순



김기영



김석남

전성환(농업위원회 부위원장)—농촌테제를 관철하여온 지난 30년간에 우리 사회주의농촌에서는 눈부신 변혁이 이룩되였다.

농촌테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밝혀진 사회주의농촌건설대강이며 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전면적인 해명을 준 고전적문헌이다.

농촌테제에 의하여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농업근로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유족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는 길이 휘황히 밝혀졌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농사를 천하지대본이라 하시며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농촌테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 일으키시였으며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령도하시였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적극 추진되여 농민들은 새형의 인간,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서의 고상한 풍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가고있으며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농업생산이 현대적과학기술의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하게 되였다. 농촌문화혁명이 적극 벌어짐에 따라 우리 나라 농촌은 살기 좋은 문화농촌으로 전변되였다.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훨씬 줄어들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농촌테제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김진흥(룡천군당위원회 선전비서)— 지난 기간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을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였다. 농민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사회와 집단을 사랑하고 로동을 애호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알뜰히 관리하도록 하는 등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결과 우리 농민들은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굳건히 고수하는 믿음직한 농업근로자로, 농촌의 주인으로 성장하였다. 농민들은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밑에 농장포전을 자기의 터밭과 같이 알뜰하게 다룸으로써 해마다 높은 수확을 거두고있다. 농민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식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꽃피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고있다. 우리 군내 농민들은 그기간 토지정리와 물길공사, 제방공사, 역수공사, 새땅찾아내는 일, 흙깔이 등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한사람같이 떨쳐나 짧은 시일안에 해냈다. 농민들은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쌀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한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하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속에서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고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등 고상한 풍모를 갖춘 새형의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며 일하고있다.

홍명렬(농업위원회 농기계지도국장)— 지난 30년간 농촌기술혁명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수리화, 전기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가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논밭갈이와 모내기, 모뜨기, 김매기, 벼단운반, 탈곡 등 중요한 영농공정들을 기계로 하게 되였으며 벼수확도 대부분 기계로 하고있다. 화학비료와 살초제, 농약들이 많이 공급됨으로써 농촌경리의 화학화도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농업생산은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섰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오호순(교육위원회 고등교육부 2기술대학지도국장)—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농촌테제는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고 농촌기술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와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개변하고 문화위생적인 생활을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국가에서는 농촌기술인재양성사업을 힘있게 내밀수 있게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부문의 대학과 단과대학, 고등전문학교를 대대적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여러곳에 농장대학과 통신교육망을 꾸리였다. 또한 농업부문 일군들의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농업재교육대학을 창설하였다. 그리하여 농촌테제발표 당시 7개의 농업부문 대학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의 4배이상으로 늘어난 많은 대학들이 농촌기술인재양성에 복무하고있으며 협동농장 작업반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기술학습을 통해서도 농민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뿐만아니라 농촌의 수도화, 뻐스화, 텔레비죤화, 농촌진료소의 병원화가 실현되여 오늘 우리 농촌은 도시 부럽지 않은 문화농촌으로 전변되였다.

김기영(평양고무공장 지배인)— 우리 공장 로동계급은 지난 30년동안 로동계급이 농민을 지도방조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할데 대한 농촌테제의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왔다. 우리 공장 로동계급은 농촌을 돕는 일을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농촌을 적극 지원하였다. 우리는 농촌경리의 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화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들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오늘도 우리 공장 로동계급은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사상정신적으로, 로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김석남(문덕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하여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키는것은 농촌테제가 제시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이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주체적인 농업지도체계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업에 종사하는 군내 모든 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도록 한것은 커다란 우월성을 나타내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공업의 방조, 도시의 지원을 실현하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여 국가에서 공급되는 현대적농기계와 관개용수 그리고 화학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를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며 협동농장들에서 당의 농업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생산계획이 국가적요구에 엄격히 립각하여 작성되도록 지도하였으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협동농장을 기업적방법으로 관리운영하도록 그의 경영활동수준을 부단히 높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지도가 철저히 보장됨으로써 당의 농업정책이 정확히 관철되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가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군이 농촌테제가 발표된지 얼마 안되여 10만톤군으로, 2중계관근위칭호를 받은 군으로 발전한 사실이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또한 국가적소유의 기업소들이 협동농장의 생산에 광범히 참가하여 농업생산에서 국가소유의 물질기술적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다수를 이루게 된 결과 두 소유의 유기적결합이 급속히 추진되였으며 소유의 사회화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고 경영활동에서 작업반우대제, 분조관리제를 실시하여 경영활동분야에서도 공업의 수준에 접근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군은 튼튼히 꾸려져 농촌에서 3대혁명을 추진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되였다.

력사적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농촌테제가 사회주의제도수립후 남아있는 농촌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지침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인민의 지도자

앞당긴 시간

1978년 8월 어느날 아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요한 공사를 맡아하고있는 어느 한 구분대의 지휘관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새 잘있었는가고 안부부터 물으시였다.

미처 인사를 먼저 올리지 못한 그 일군은 아무 일도 없이 잘 있다고 송구스럽게 대답올리였다.

그런데 전화로 울려오는 그의 목소리에서 벌써 모든것을 간파하신 그이께서는 또 현장에서 밤을 새운 모양이라고 하시며 걱정하시였다.

당황한 일군이 그렇지 않다고, 잠을 잘 잤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아니요. 잠을 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요.》

그이의 말씀은 옳았다. 그 일군은 공화국창건 30돐기념일전으로 그 공사를 끝내기 위해 요즘 계속 건설현장에서 밤을 밝히고있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설계도면이 다 준비되였는가 물으시고는 **《그럼 오늘 보아주겠으니 도면을 가지고 여기에 1시까지 도착하시오.》** 하고 지시하시였다.

그 일군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아주실 도면에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전화가 끝나자 관계부문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다시금 하나하나 세심히 검토해나갔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전화종이 울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또다시 걸어주신 전화였다.

《내가 아까 오후 1시까지 오라고 하였는데 그러지 말고 9시까지 도착하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승용차를 보내주겠으니 타고 오라고까지 다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얼마후 그 일군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차에 올라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가게 되였다.

그곳에 도착하니 이미 기다리고있던 한 일군이 그에게 침대가 놓여있는 방을 열어주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계시였으니 우선 목욕부터 하고 찾을때까지 그 방에서 쉬라고 하였다.

급히 목욕을 하고난 그는 침대우에 걸터앉아 그 일군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좀처럼 그 일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느라니 자꾸만 졸음이 왔다. 며칠밤을 새운뒤 목욕까지 하고 푹신한 침대에 앉아있으니 못견디게 졸음이 왔으나 그는 애써 참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소르르 깊은 잠에 빠지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건설장에서 쪽잠이 들 때면 요란한 발파소리에도 깨지 않던 그가 오늘은 창밖에서 재잘거리는 새소리에 잠을 깼다. 그만큼 푹 잤던것이다.

황급히 시계를 보니 9시는 고사하고 벌써 오후 1시가 넘었다.

가슴이 뜨끔하였다.

(내가 무슨 실책을 저질렀는가!)

더는 방안에 있을수 없었다.

그는 급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 문밖으로 나섰다.

때마침 아침에 안내해주던 일군이 웃음을 띠우고 마주오더니 이제는 점심식사를 하자고 하였다.

그가 그럴수 없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먼저 만나뵈와야 한다고 고집하자 일군은 빙긋이 웃으며 식사를 한 다음 그이께서 만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어쩌는수 없이 그 일군을 따라 식당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서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곳으로 안내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보시던 문건을 밀어놓으시고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좀 쉬였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책없이 오전시간을 내처 잠을 잔데 대하여 사실대로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한잠 자고나니 기분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기분이 좋고 힘이 솟습니다.》

죄스러운대로 그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기분이 좋고 힘이 솟는다! 좋은 일입니다. 내가 동무를 오전에라도 좀 쉬우자고 일찍 불렀는데 그렇게 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몹시 만족해하시였다.

그제야 자기를 오후 1시가 아니라 오전 9시에 오라고 하신 그이의 다심한 사랑이 한가슴가득 차넘쳐 그는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참을길 없었다.

[주체사상학습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3)

앞에서는 사회적운동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면 이번에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기로 하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라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직접 책임지고 담당수행하며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힘이 인민대중이라는것이다.

그러면 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가?

그것은 우선 혁명과 건설이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하는 사업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해나가려는 지향으로부터 혁명과 건설을 요구한다. 뿐아니라 인민대중은 자기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혁명과 건설을 스스로 맡아수행한다. 그 누구도 인민대중을 대신하여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줄수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기의 손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투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킨다. 세상의 귀중한 물질적재부와 문화적재부들도 다 인민대중자신이 자기 손으로 직접 창조한것들이고 노예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의 사회구조의 교체과정도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한것이였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사회적 변혁과 진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또한 인민대중이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귀중한것은 다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된다. 세상에 인민대중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나온 창조물이란 하나도 없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에 의하여 자연도 사회도 사람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나하나 개조되면서 사회가 오늘과 같이 발전되게 되였고 력사가 전진하여온것이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노예제도를 뒤집어엎은 혁명운동이나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 이 모든 혁명운동은 서로 다른 력사적조건에서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있으며 결과도 다르지만 그 주인은 인민대중인것이다.

봉건제도를 뒤집어엎은 부르죠아혁명에서는 신흥부르죠아지가 혁명에 참가한 실례는 있었지만 그들은 착취자로서의 자기의 처지로부터 동요하거나 봉건세력과 타협하였으며 지어 야합하는 길로 나갔다. 1905년과 1917년 2월에 있은 로씨야의 부르죠아혁명이 그 실례로 된다. 결국 봉건제도를 뒤집어엎은 부르죠아혁명에서도 그 주인은 례외없이 인민대중이였다.

나라와 민족은 오랜 력사적과정에 형성된 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으로 되여있는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은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게 된다. 이런 실정에서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으로 된다.

매개 나라 인민은 다른 나라의 혁명에 무관심해서는 안되며 서로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인이 준비되여있지 못하면 은을 낼수 없다. 마치도 죽은 나무에 물을 주어도 소용이 없는것과 같다. 력사적경험은 매개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준비되면 외부의 지원이 없어도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밖으로부터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력사에는 혁명정세가 유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인 혁명력량이 마련되여있지 못했기때문에 인민이 정권을 잡지 못한 실례가 있었다.

이것은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이며 매개 나라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그 나라 인민이라는것을 실증해주는것이다.

그러면 반동적착취계급은 어떤 존재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며 반동적착취계급은 력사의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를 개척하고 발전시키지만 착취계급은 력사의 전진을 멈춰세우고 되돌려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착취계급은 결국 력사의 반동으로, 혁명의 대상으로 됩니다.》

반동적착취계급은 력사의 반동으로, 혁명의 대상으로 된다. 그들은 력사의 전진운동을 멈춰세우고 되돌려세우려고 한다.

반동적착취계급은 자연과 사회개조를 방해한다. 그들은 자연을 개조할 능력도 없으며 그것을 천한 일로 생각한다. 지어 생산의 발전을 방해한다. 세상에 형광등이 나왔을 때 백열등을 만드는 독점체들과 전력을 생산하는 독점체들은 사람들의 생활에 유익한 형광등생산을 제한할데 대한 계약까지 체결하였다고 한다.

한가지 례를 더 들어보자. 예로부터 귤은 우리 나라의 남해바다가에서도 재배되였다고 한다. 그런데 봉건통치시기에 통치자들이 세금을 너무도 높였기때문에 바쳐야 할 귤량이 따들이는 량보다 더 많았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할수없이 귤나무를 찍어버렸는데 이렇게 되여 귤나무는 제주도에만 남게 되였다고 한다. 이런 실례는 많다.

반동적착취계급은 사회의 개조도 반대한다. 그들은 수많은 폭압기구를 만들어놓고 진보적인 사회적개혁을 요구해나선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력사의 수레바퀴를 꺼꾸로 돌려보려고 책동한다.

인민대중은 이러한 반동적착취계급을 력사무대에서 없애버리기 위하여 투쟁한다. 이 과정에 력사가 전진하게 되는것이다.

본사기자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민족단합의 기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일곱번째조항에서 조국이 통일되기전에는 물론 통일된후에도 국가적소유, 협동적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있는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여기에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제도상의 그 어떤 차이도 모두 초월하여 민족의 진정한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며 계급과 계층, 재산과 신분여하를 가리지 않고 온 민족을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 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주석의 위대한 애국애족의 사상, 한없이 넓으신 도량이 깃들어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으며 누구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서로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출발한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가 모색되여야 한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이러한 통일방도로서 일찌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하시였으며 이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도 우리 나라의 통일국가는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밝히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밝히신 련방제통일방안은 통일을 바라는 민족성원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것이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우려를 가질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 민족안에는 각이한 리해관계를 가진 계급, 계층들이 존재하고있으며 그들가운데는 통일된후 자기가 소유하고있는 물질적재산과 사회적명예, 자격 등의 안전성여부때문에 위구심과 우려를 가지고 통일을 방관시하거나 지어 통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이런 현실을 통찰하시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 민족성원 누구나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에 서슴없이 뛰여들수 있는 길을 다시금 열어주시였다.

주석께서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 우선 통일되기전에는 물론 통일된후에도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소유들을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을 보호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여있는 공화국북반부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의 두 형태인 국가적소유(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있다. 남조선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지배하고있다. 그리고 북과 남에는 소비품 등에 대한 개인소유와 단체의 재산, 개인의 자본 등도 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의하여 통일되기전에는 물론 통일된후에도 여러가지 형태의 소유, 자본과 재산을 인정보호한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민족성원들이 소유나 재산 관계에 대한 우려때문에 조국통일운동에 나서지 못할 리유란 없게 되였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는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할데 대한 문제도 지적되여있다.

북과 남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합작 등 각이한 형태의 경제관계를 가지고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한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외국과 경제관계를 가지고있는 민족안의 단체나 개인이 이에 대한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되였으며 더우기 조선의 북 혹은 남과 경제관계를 가지고있는 외국인들도 경제적리권에 대한 우려때문에 우리 나라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을 리유가 없게 되였다.

해외동포들가운데도 북과 남의 국가 또는 단체와 경제적합작 등 여러가지 경제관계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의하여 통일된후에도 그들이 투자한 자본 또는 재산이 철저히 보호받게 됨으로써 조국통일을 두려워할 리유가 조금도 없게 되였다.

참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민족의 모든 성원들, 지어 통일을 방관시하거나 두려워하던 사람들까지도 그 어떤 위구심과 우려를 다 털어버리고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나서도록 힘있게 불러 일으키는 폭넓은 민족단합의 기치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천명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열렬히 지지환영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는 여기에 애국이 있고 조국통일에로의 길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경애하는 주석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운봉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2)

—중심주제《승리》상—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중심축끝에는 중심주제《승리》상이 웅장한 규모로 솟아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시대의 걸작으로 완성시켜주신 중심주제《승리》상은 인간형상을 탑화한 우리식의 새로운 기념탑형식으로서 주탑을 이루고있다.

《승리》상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모든 부주제조각군상들과 조각작품들, 구조물들에 깃든 승리자의 숭고한 뜻과 주제사상적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집대성하고있다.

《승리》상은 다른 부주제군상들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그 크기를 설정하고 승리에로 부르는 인민군전사의 인물형상을 앞가슴에 메워진 기관단총, 오른손으로 억세게 틀어쥔 공화국기발, 승리에로 힘있게 부르는 왼손, 날리는 비옷자락과 함께 강한 률동성을 띤 탑형식으로 집약화되였다.

《승리》상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한 제2의 해방의 날인 7월 27일을 상징하여 총 높이를 27메터로 하였다.

이 조각군상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력사적승리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사회주의적책동을 물리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온 위대한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쟁취하고야 말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상징하고있다.

한손에 휘날리는 오각별 찬란한 공화국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대중을 원쑤격멸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키는《승리》상의 인민군전사의 숭엄하고도 격동적인 형상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모신 우리 인민의 견결한 반제투쟁정신과 필승불패의 영웅적기상이 넘쳐흐르고있다.

인민군전사가 높이 추켜든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은 우리 인민의 참다운 행복과 미래를 꽃피워주고 담보해주는 우리 조국의 상징이며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인 사회주의기치의 상징이다.

하기에 인민군전사는 혁명의 이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며 공화국기발을 지켜 대중을 원쑤격멸의 성전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키던 그날의 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할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또한 《승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고있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본사기자 윤대중



3대혁명전시관(5)

오늘 우리 나라에서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고있는것은 3대혁명의 위대한 생활력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기도 하다.

3대혁명전시관에는 이 위대한 현실이 집약되여있는 농업관이 있다.

1만여평방메터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이 관에는 농업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함께 간석지개간, 국토관리, 수산, 양어, 기상수문, 지진연구 부문의 성과들과 남남협조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성과자료들과 전시물 1,000여종에 6,000여점이 2개의 층에 전개되여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당의 농촌건설강령이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입니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의 여러 단계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여기에 많은 힘을 기울여왔다.

전시관에서는 해방후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밭갈이하는 농민들이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려던 세기적숙망이 실현되고 전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농업협동화가 빛나게 완성되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창시되여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며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인 사회주의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우리 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온 력사를 여러 사진자료들과 장성수자들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만세!》라고 쓴 대형글발이 걸려있는 전시장에는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꽉 채워져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철의 풍요를 그대로 펼쳐보이고있다.

전시장의 록색혁명부문에는 우리 나라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품종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포융합기로 벼, 강냉이, 남새를 비롯한 농작물의 새 품종을 얻어내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조직배양에 의한 감자재배방법, 비료주기를 전자계산기화한 자료들이 실물, 록화자료 등 여러가지 전시물들로 전시되여있다.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생물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다수확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과정에 이룩한 성과자료들도 전시되여있다.

주체농법전시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찬바람, 뙤약볕도 가리지 않으시고 포전길을 걸으시며 농민들과 담화도 하시고 농사법도 가르쳐주시며 주체농법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현명한 령도아래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과 경험들을 통하여 주체농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전시장에는 또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밝혀주신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인 수리화, 전기화가 완성되고 기계화, 화학화가 완성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데 대한 자료들과 전시물들이 있다.

서해지구관개사판은 농촌수리화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20리 날바다우에 솟아난 서해갑문을 주축으로 건설된 2,000리 서해지구물길과 평남관개, 기양관개 등 그물처럼 뒤덮인 관개망들…

우리 나라의 전국각지에는 년간 수십억톤의 물을 저장할수 있는 저수지가 1,700여개가 있으며 수리화체계의 총 연장길이는 지구 한바퀴를 도는 길이와 맞먹는다고 한다. 이것은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우리 농촌의 자랑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우리의 로동계급이 만든 뜨락또르, 벼종합수확기, 모내는기계, 논심층시비기 등 수십여종의 농기계들과 화학비료생산자료들은 농촌테제가 밝혀준 기계화, 화학화의 과업이 훌륭히 실현되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농업관의 1층에는 또한 간석지개간에서 이룩된 성과와 그 전망, 국토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전시물들이 전시되여있다.

우리의 간석지건설자들이 날바다우에서 파도와 싸우며 창조한 경험들도 좋은것이지만 30만정보 간석지개간전망도는 보다 높은 알곡고지점령에 대한 휘황한 전망을 안겨주고있다.

농업관의 2층에는 수산, 양어, 기상수문, 지진연구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남남협조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전시물들이 전시되여있다.

수산부문 성과전시장에서는 세면이 바다를 끼고있으며 무진장한 수산자원이 있는 우리 나라에서 원해어업과 중소어업을 옳게 배합하고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을 여러 어구들과 갖가지 물고기가공제품들, 물고기가공기계 등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2층에 전시된 각종 기상관측기구들, 지진감시체계도, 우리 탐험대원들의 2차에 걸치는 남극탐험자료 등은 자연을 휘여잡아 인간에게 복종시켜나가고있는 거대한 현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농업부문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령도의 현명성과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금숙



3대혁명전시관의 농업관 전경



벼《평양15호》



여러가지 품종의 강냉이들



농업관의 전시품들을 돌아보는 외국의 벗들



농업관 1층 홀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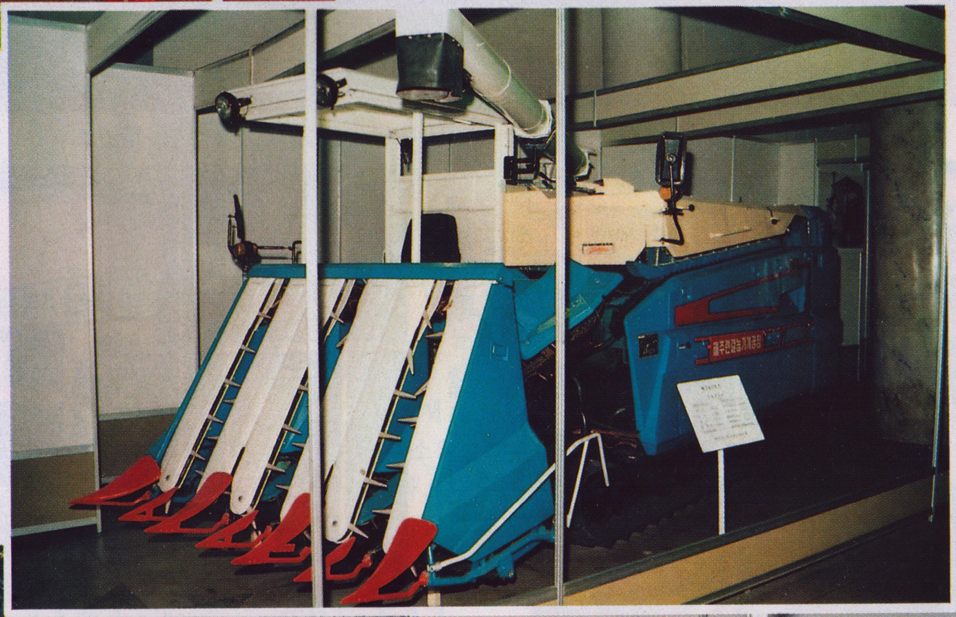
여러가지형의 뜨락또르들



과수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자료들



축산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자료들



벼종합수확기



여러가지 농기계들



여러가지 비료들



30만정보 간석지개간 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자료들



잠업에서 이룩한 성과자료들도 전시되여있다



바다가양식의 과학화, 현대화를 보여주는 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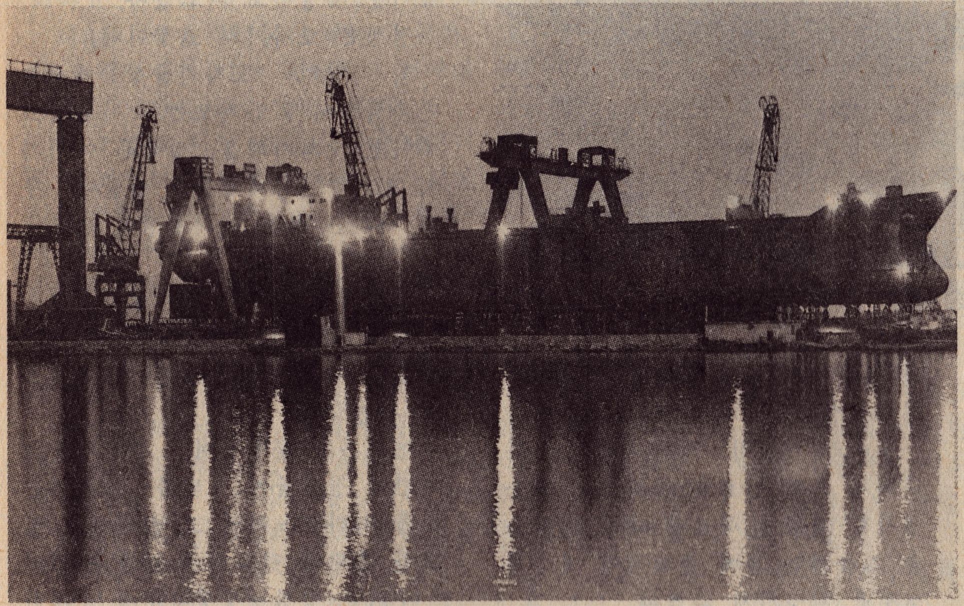


일기예보를 제때에 알려주는 공정체계도 있다

본사기자 정명준

기행— 동해기슭을 따라

청진/-경성지구



함북조선소련합기업소의 일부

동해의 라진만을 뒤에 남기고 천태만상을 이룬 바다기슭의 아름다운 풍치를 바라보며 내려오느라면 고말산단을 굽이돌게 된다.

청진지구에 들어선 우리의 눈길을 선참으로 끈것은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거창한 전경이였다.

산악처럼 솟아있는 용광로며 대형소결로직장, 열간압연분공장이며 강철직장, 바다기슭을 꽉 메우며 솟은 철의 기지에는 주체공업의 위력이 력력히 보이여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려행길에서 우리와 친숙하여진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생산부기사장은 기업소의 정문을 들어서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오늘 청진지구에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쇠돌채취로부터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와 합금철생산에 이르기까지 부문구조가 완비되고 대형화, 현대화, 자동화된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흑색금속기업소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았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야금기지의 하나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물론 청진제강소와 부령야금공장도 이 지구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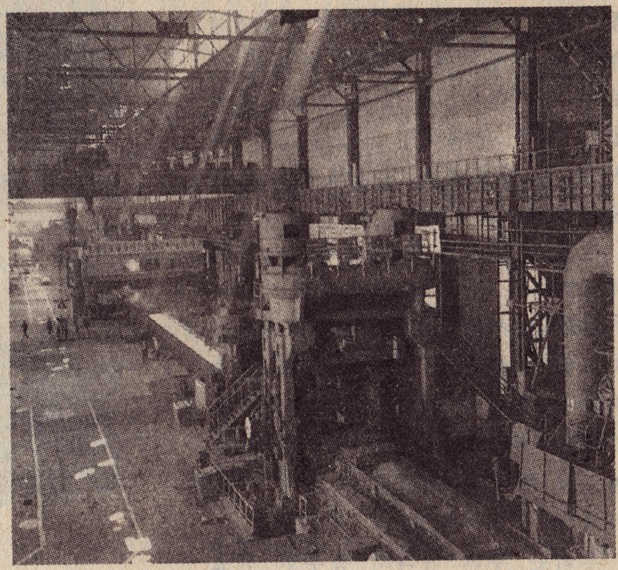
김책제철련합기업소구내에 들어선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벅찬 광경에 주춤했다.

방송차를 앞세운 경제선동대가 월계획을 초과수행한 강철직장로동자들의 로력적성과를 축하해서 음악과 노래를 방송하는가 하면 이 기업소의 로동계급을 지원하여 청진지구 인민들이 보내는 지원물자를 실은 화물차가 늘어섰고 강판을 실은 화차를 단 기관차가 기적을 울리며 힘있게 달렸다.

우리는 열간압연분공장 압연직장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가열로에서 나온 강철덩이가 압연기를 거쳐 강판이 되여 종이퉁구리처럼 감겨지는 작업모습을 바라보았다.

반백이 넘은 생산부기사장은 우리를 보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야금기지로 될수 있었다고 하면서 지난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것이였다.

조국이 해방된 그 다음해 1946년 4월, 위대한 주석께서는 오늘의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이곳 로동계급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파괴된 용광로와 해탄로를 복구할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모든것이 파괴되고 전쟁의 상처가 채 가셔지지 않은 1954년 7월 또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압연직장



바다가에 펼쳐진 명승지를 찾은 근로자들

시 제철소를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이 제철소를 원상대로가 아니라 더 크게 더 좋게 개건확장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5개년계획에 들어서던 해인 1957년 5월 또 이 기업소를 찾으시여 당의 경제로선을 관철하자면 철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교시를 심장깊이 받아안은 이곳 강철전사들은 보수와 침체, 기술신비주의를 산산이 짓부시고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2호용광로를 불과 6개월동안에 복구건설하였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김책제철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야금공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며 자체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여 더 많은 철을 생산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완성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현장에는 로동자들이 거의 없고 해빛밝은 조종실에 산업텔레비죤과 마주앉은 처녀들이 스위치를 매만지고있는 광경을 보며 우리는 로동자들을 고열과 유해 로동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그처럼 마음을 많이 써오신 위대한 주석의 로고가 되새겨져 가슴뜨거워졌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풍부한 연료와 쇠돌을 가지고 립철을 생산하는 청진제강소에도 들리였다.

우리의 기술자,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에 흔한 연료를 가지고 철을 생산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연구를 거듭하던 끝에 주체적인 새 제철법을 완성하게 되였다.

오늘 이 제강소에서는 새 제철법으로 《조강》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철을 생산하고있다.

청진을 지나 남으로 곧추 뻗은 바다기슭을 따라 내려가면 경성천어구에 이른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관모봉에서 흐름을 시작하여 수려한 산악미와 계곡미를 자랑하며 흘러내리는 경성천기슭의 경치도 철승이지만 온천이 솟아나고 강어구가까이에는 백사장이 뻗어가 근로자들의 즐거운 휴양지로 되고있다.

경성은 도자기의 고장이다.

이 지방의 도자기공장들에서는 민족적정서가 안겨오는 아름답고 우아한 도자기제품, 질좋은 여러가지 전기절연용제품들을 만들어 우리 나라는 물론 대외시장에 내보낸다.

도자기공장의 전반적생산공정은 기계화, 자동화되여 성형으로부터 소성에 이르는 전공정이 흐름식으로 되여있다.

여러가지 꽃병이며 주전자들의 겉면에 정성들여 무늬를 그려가는 것을 바라보느라면 그 섬세하고 정교한 솜씨에 탄복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청진－경성지구에 대한 취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하였다.

북변의 청진－경성지구는 주체공업의 위용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라고.

본사기자 조광열



경성도자기 련합회사

제3차 7개년계획수행총화

지난해 12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제3차 7개년계획(1987년－1993년)이 끝난것과 관련하여 그 수행정형을 총화하고 당면한 경제건설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내외정세가 가장 복잡하고 첨예한 시기에 준엄한 시련과 난관속에서 진행되였다.

이 기간에 이전 쏘련과 동구라파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세계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의 반사회주의적공세로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급변하였다. 세계 사회주의시장이 붕괴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관계에서도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였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위험이 더욱 증대되여가는 조건에서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많은것을 국방에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는 제3차 7개년계획에 예견하였던 경제장성속도를 조절하고 경제규모를 줄이면서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경제구조를 더욱 완비하며 달라진 환경에 맞게 대외경제관계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특히 경공업, 소비재생산에 힘을 넣어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중공업부문에서는 전력, 석탄 공업을 확고히 앞세워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였다.

국제적사변들과 첨예한 정세로 인하여 제3차 7개년계획에 예견하였던 공업생산의 총규모와 전력, 강철, 화학섬유를 비롯한 일부 중요지표들의 계획을 미달하였으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생산은 1.5배로 늘어났으며 공업생산의 년평균증가속도는 5.6%에 이르렀다.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앞세우고 금속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돌려져 나라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가 더욱 확대강화되고 질적으로 공고화되였다. 1993년에 전력생산은 1986년에 비하여 1.3배로 늘어났으며 우리의 전력공업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자체의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동력기지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계획기간 석탄생산은 1.4배, 유색금속광물생산은 1.6배로 늘어났다.

금속공업이 발전하고 그 주체성과 자립성이 더욱 강화되여 강철생산은 1.3배로 늘어났다.

기계공업의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하였으며 기계설비의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가 힘있게 추진되였다.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조를 다그치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전자, 자동화 공업이 빨리 발전하여 이미 마련된 전자 및 자동화 요소생산기지들이 정비보강되고 새로 집적회로와 전자계산기, 조종장치를 비롯한 현대적인 전자 및 자동화 요소생산기지와 전자일용품생산기지가 꾸려져 전자, 자동화 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더 강화되였다.

주체적이며 종합적인 대규모화학공업기지인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제1단계공사가 완공되였으며 많은 화학섬유기지들이 정비보강되고 기초화학제품생산기지들이 새로 꾸려졌다.

경공업발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여 경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만부하로 돌리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신발생산이 늘어나고 식료공업과 일용품공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 농촌경리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사회주의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사회주의협동경리제도가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우리 당의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고 록색혁명에서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여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하였다.

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농촌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수리화와 전기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고 기계화, 화학화에서 전환을 가져왔다.

계획수행기간 2천리물길을 포함하여 연 2만 6,000리의 물길들과 1만 2,400여개의 양수장, 192개의 저수지, 1만 6,000여개의 지하수시설들이 새로 건설되여 논, 밭 관개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발전된 관개의 나라로 되였다.

농촌에 뜨락또르와 자동차, 모내는기계, 모뜨는기계, 논두렁짓는기계, 수확기를 비롯하여 현대적농기계가 수많이 공급되여 종합적기계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계획수행기간 화학비료공급량은 1.4배로 늘어나고 살충, 살균제와 살초제 공급량이 훨씬 늘어났다.

수산업에서도 대형고기잡이배들이 수많이 늘어나고 고기배들과 가공시설이 현대화되였다. 특히 바다가양식에서의 수산물생산량이 훨씬 늘어났다.

철도운수에서 철도의 현대화가 다그쳐지고 새 철길이 수많이 건설되여 철도수송능력이 더욱 늘어났다. 북부내륙선철도가 새로 건설되고 연 800키로메터 구간의 철도가 더 전기화되여 철도본선전기화는 기본적으로 완성되였다. 집중수송, 집합수송이 더욱 강화되고 철

도운영의 자동화, 전자계산기화가 적극 추진되였다.

기본건설에서 동력기지, 금속공업기지, 화학공업기지 건설이 추진되여 공업부문에서만도 1만 1,000여개 대상이 새로 조업을 하고 대자연개조사업이 진행되였다. 살림집건설이 추진되여 웅장화려한 광복거리, 통일거리가 일떠서고 10만여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건설되였으며 100여만 세대의 농촌살림집이 건설되였다.

건재기지건설부문에서도 200만톤능력의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건재기지들이 건설되여 날로 늘어나는 건재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문화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여러 단계의 과학발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적수준이 높아지고 55개의 대학과 많은 고등기술전문학교들이 새로 창설되였다. 우리의 지식인대렬은 173만명의 대부대로 자라났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주체적인 문예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보건부문에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구현되여 병원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의료봉사기관들을 더 내와 1993년에 인구 1만명당 의사수는 29.7명에 이르고 근로자들의 평균수명은 74.5살로 늘어나게 되였다.

계획기간 인민생활이 높아졌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와 사회보장자들의 사회보장년금,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들의 장학금을 40%이상 올리였으며 협동농민들의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의 수매가격을 훨씬 높이였다.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가져다준 고귀한 열매이다. 이 빛나는 성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봉쇄나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되며 자립적인 토대우에서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우리는 제3차 7개년계획의 수행을 통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의 륭성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담보할수 있는 큰 힘을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한층 더 높이 발양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은 변천된 환경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2~3년간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로 나갈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농업과 경공업, 대외무역 발전에 힘을 넣으며 우리 경제의 자주성과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뭉친 인민대중의 힘이 있다.

우리는 어떤 정황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먹고 입고 살아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다.

그리하여 가까운년간에 모든 사람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숙망을 실현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놓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상식

하루 6고뿌 이상 물마시기

인체의 수분함량은 체중의 약 60%인데 그가운데서 60%는 세포안에 있고 나머지 40%는 세포밖에 있다. 인체의 모든 기능이 물을 필요로 하며 모든 조직이 물속에서 운동한다. 이로부터 물은 사람의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하루에 얼마만한 물을 섭취해야 하는가.

하루에 사람의 몸에서 물은 오줌으로 1,500미리리터정도, 땀으로 약 500미리리터, 폐 등을 통하여 500미리리터정도 나간다. 총적으로 하루에 약 2,500미리리터의 물을 소모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루에 약 2.5리터의 물을 먹어야 한다. 세끼 식사를 통해(밥, 국, 반찬, 과실 등에 포함된 수분) 하루에 일반적으로 800미리리터정도의 물을 섭취하고 또 음식물이 몸안에서 분해될 때 약 200미리메터의 물이 생긴다. 그러므로 나머지 부족한 1.5리터가량은 물을 마시는것으로써 보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고뿌의 물은 약 200~250미리리터이다.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6고뿌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

심장병이 있거나 콩팥기능이 약한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매일 마시는 물량을 6~8고뿌이상으로 초과하는것이 더 좋다.

물을 적게 마시면 몸안의 페설물이 잘 배설되지 않고 피곤을 느끼게 되며 정서가 떨어지고 불안을 느끼게 되며 머리가 흐리터분해진다. 물을 마시는것은 감기나 방광염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차 물 두고뿌를 마신다.

식사하기 15분전부터 식사후 한 시간정도까지는 물을 될수록 마시지 않는것이 좋다. 이때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여 소화에 영향을 줄수 있다. 오전에 쉬염쉬염 물 두고뿌를 마시고 오후에도 두고뿌를 마시며 저녁 잠자기전에는 한고뿌정도 마시면 좋다.



중국 길림성 서란현 진교공사 영안대대 영안툰소대 장인숙 앞

그리운 어머님에게

어머니, 오늘은 류달리도 그리운 어머님에게로 달려가는 마음 금할수 없구만요.

가장 기쁜 순간에도 그 사연을 먼저 어머님에게 아뢰고싶은것이 자식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군대에 나간 맏아들인 명호에게서 편지가 왔더군요.

부대의 명사수로 자라나 훈장과 표창장까지 받아안은 끌끌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보내지 않았겠어요.

저와 명호아버지는 너무 기뻐 어쩔줄 모르며 사진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자식을 키운 부모의 보람이란 무엇이겠어요?

나라앞에 떳떳하고 대견한 아들로 내세웠을 때의 기쁨이 어떤것인지 저는 요즘에 더욱 새삼스레 느끼군해요.

저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고 두 아들인 명호와 명환이에게 늘 일깨워주었어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지만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조국을 위한 판가리싸움에 서슴없이 한몸을 바쳤겠는가를 철들어 깨달은 저였습니다.

참된 조국이 없으면 일개인의 진정한 삶도 있을수 없다는 철리.

이것은 제가 이땅에 일점혈육도 없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체험한 생활의 신념이였어요.

망국노의 시절 선조들이 이국땅에 생활의 터를 잡은것으로 하여 우리 일가가 모두 타향에서 살고있지만 제가 15살 홀몸으로 조국땅에 나와 정착한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예요.

살아서 못가면 죽어서라도 조국에 가고싶은것이 해외동포들의 소원인데 나는 이 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자식들까지 나라의 어엿한 아들로 키워냈으니 이 긍지와 자부심이 끝이 없답니다.

어머니, 내 뜻을 명심한 명호와 명환이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진하여 인민군대에 복무하겠다고 결심하더니 이제는 외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여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군대로서 조국의 초소를 철벽으로 지켜가겠다고 자주 기쁜 소식을 보내오고있답니다.

요즘 대견한 두 아들의 성장을 두고 명호아버지와 저는 늘 즐거움속에 지내고있답니다.

저의 기쁨은 여기에만 그치는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에게서 소식이 올적마다 이웃집에서 반가와하고 온 인민반이 함께 기뻐하며 후방가족이라고 높이 떠받들어주고있답니다.

직장에 나가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늘쌍 아들들의 소식을 묻고있으며 소식이 오고 사진이 오면 제 자식을 보는것처럼 기뻐들하며 저에게 대견한 아들들을 두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흥에 겨워 봉사활동을 하면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모두 저를 보고 기뻐하는것만 같습니다.

어머님, 우리 가정에 기쁨이 커가고 생활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질수록 어머님에게 달리는 마음이 더욱 커갑니다.

제가 어머님을 만나뵈온지도 벌써 9년 세월이 흘러갔구만요.

그때 어머님이 저의 손목을 잡고 《수도 평양에서 산단말이지? 평양이 그리도 황홀하고 훌륭한 도시라고 하던데 고아나 다름없는 네가 어찌되여 그 번화한 도시에서 외로운것을 모르고 그렇게 랑만적으로 산단 말이냐?》라고 자꾸만 되뇌이시던 말씀이 지금도 저의 귀전에 쟁쟁히 들려옵니다.

그럴수록 제가 사는 이 도시 평양에, 저의 가정에 꼭 어머님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모시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지군합니다.

어머니,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 수도 평양은 참으로 깨끗하고 훌륭한 도시랍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들고 해외동포들이 그칠새없이 찾아오는 평양의 모습은 한번 왔다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금 찾아오리라 결심하고야 떠나게 되는 인상깊은 도시랍니다.

그러나 그 외경만이 어찌 우리 평양의 전부라고 할수 있겠나요.

어머님이 꼭 이딸을 찾아서, 이 평양을 찾아서 이곳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인간화목의 대화원을 이루고있는 우리 사회 인간들의 참모습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시게 될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사는 우리 집과 우리 가족, 그리고 저의 이웃들과 저의 직장, 우리 평양을 구경하시려 꼭 방문하여주십시오.

그날을 저와 명호아버지, 두 외손자가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상봉의 그날을 그리면서 어머님의 건강을 바랍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보통강2동
41반 딸 지은실 올림

고향소식

청단군의 변모

고국의 서해바다가에 황해남도 청단군이 위치하고있다.

이곳 읍지구에는 중국 길림성 왕청현 소재지에 거주하고있는 김정숙의 아들 리만실과 중국 흑룡강성 아성시 장창현의 삼촌 장시태가 살고있다.

중국에 살고있는 친척들에게 자기의 고향소식을 전해주고싶어하는 그들을 찾아서 청단군에 갔던 우리는 군일군들과 해외동포연고자들로부터 청단군의 연혁을 들었다.

청단군은 1952년 12월 행정구역개편때에 이전의 남연백군과 벽성군에서 갈라져 새로 생긴 군이다.

청단군은 해방전까지 매우 뒤떨어진 농촌지대였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이고장 인민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왔다. 벌방지대이지만 농사가 안되여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는 사람들이 많았다.

8.15해방을 맞이했건만 군넓이는 약 절반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38도선 남쪽지역은 외래침략자들에게 강점되여 또다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새조선건설에 떨쳐나섰던 38도선이북 군사분계선접경지역 주민들도 남조선괴뢰들의 무장도발책동으로 하여 불행을 겪게 되였다. 농들은 토지를 분여받고 제땅에서 농사를 짓는 평화로운 주민들에게 여러차례나 총탄을 퍼부었으며 많은 주민들을 랍치해가거나 학살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정부에서는 군사분계선접경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었다.

남녘땅 농민들의 물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서는 1948년 6월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으로 구암저수지와 례의저수지 관개용수를 남조선연백지방에 공급하도록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하여 군이 북과 남 두 지역으로 갈라져있었지만 남쪽 천수답도 그때에 생명수를 받아안았던것이다.

전후 공화국의 품에 안긴 청단군은 천지개벽을 하였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이 군에 있는 구암저수지를 만년대계의 급수기지로 전변시켜주시였으며 1957년 6월에는 청단군을 몸소 찾으시고 가물피해를 막을 대책적문제를 의논해주시였다.

이곳에서는 저수지공사가 힘있게 벌어졌다. 광명저수지, 송현저수지, 신현저수지를 건설하였고 남바다를 막아 9.18저수지를 만들었다. 크고 작은 물길공사를 하고 도처에 양수장을 건설하여 산비탈밭들에서까지 가물피해를 모르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청단군에서는 물걱정을 모르고 년대를 이어오면서 농사를 안전하게 짓게 되었던것이다.

지난해에는 일기조건이 매우 불리했지만 풍년이 들었다. 지금 이 군의 정당수확고는 해방직후에 비해 4배이상 늘었다.

공예작물과 축산물 생산량도 높아졌다.

곡창지대여서 흰쌀도 좋지만 청단배는 단맛과 물이 많아 전국에 알려져있다.

해방후 자그마한 양조장밖에 없었던 이곳에 오늘은 지방산업공장들이 수십개나 일떠섰다. 특히 식료품공업, 일용품공업이 발전하였는데 이곳의 왕골구럭과 붓, 옷솔등은 대외시장에서도 평이 좋다.

바다에서는 까나리, 전어, 농어, 대합 등 수산물을 잡아내고 저수지들에서는 기념어, 초어, 잉어, 붕어 등 민물고기들을 낚아낸다.

땅속에는 흑연, 카리장석, 금, 은을 비롯한 지하자원들이 풍부하며 야산들에는 호두나무숲이 설레이고있다. 수삼나무조성은 전국의 모범이다.

전후에 벽돌공장이 건설되여 그 벽돌로 많은 살림집을 지었으며 600여석의 좌석을 가진 군종합문화회관, 1,400여평방메터의 건축면적을 가진 2층으로 된 목욕탕이 건설되였다. 수백세대의 덩지 큰 아빠트들을 일떠세웠다. 인구가 불어나고 번창해졌다. 그 어디에 가보아도 어제날의 초라한 흔적은 찾아볼수 없게 되였다.

배우고싶어도 군에 학교가 없어 배울수 없었던 농사군의 자식들이 현대적으로 건설된 각급 학교들에서 무료로 마음껏 공부하고있다.

병원은 고사하고 약방 하나 없던 이곳에 현대적의료시설을 갖춘 20여개의 병원들이 건설되였으며 주민들은 누구나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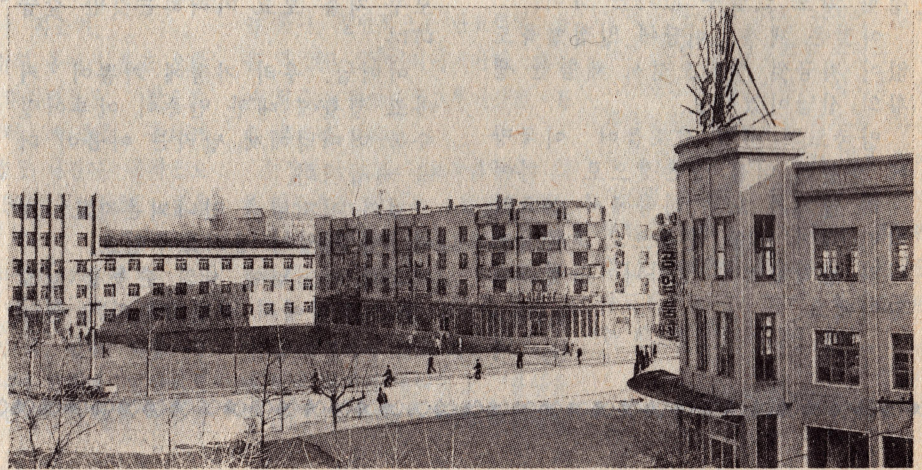
구암저수지기슭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양소도 건설되였다.

군의 생활이 향상되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있다. 신문과 방송, 텔레비존에는 청단군의 변모가 자주 소개되고있다.

우리와 만난 해외동포연고자들은 한결같이 강조했다.

《청단군이 지난날과는 하늘땅차이로 변하여 해외에 있는 친지들이 찾아오면 옛모습은 찾아볼수 없을것입니다.》

본사기자



청단군의 일부

수 기

평양과 더불어 간직된 민족의 긍지



나는 그리운 고향과 형제들이 보고싶어 자주 조국에 다녀왔다.

조국방문기간 수도 평양에 머물러있는 나날은 언제나 나에게 삶의 희열과 랑만을 안겨주는 보람있고 뜻깊은 나날이였다.

언제 다녀봐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갈하게 꾸려진 거리거리.

새벽공기를 마시며 호텔창문을 활짝 열어제끼면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는 주민들의 습관된 새벽일과가 인상적이였고 보람찬 일터로 활기있게 출근하는 시민들의 물결치는 모습은 내 마음조차 흐뭇하게 하였다.

그 어데나 인민의 생활이 랑만적으로 흐르고 인민의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는 평양의 모습을 볼때마다 깊은 감동에 젖군하던 나였다.

그런데 이번에 나는 조국에 갔던 기회에 텔레비죤에서 보게 된 단군릉발굴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으로 수도 평양에 대한 더 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를 간직하게 되였다.

단군의 유골이 평양시 강동군 강동읍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서 발굴, 유골측정년대는 5,011년이라는 보도에 접했을 때 나는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단군은 평양일대에서 태여나 오늘의 평양에서 고조선을 건국하였으며 그가 죽어서 묻힌곳도 평양일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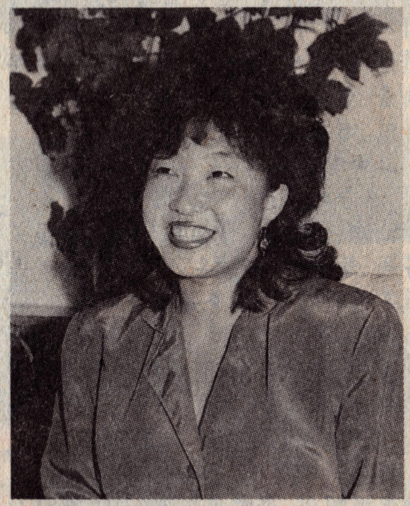
우리 민족은 평양이 있어 《단군조선》을 맞이할수 있게 되였고 반만년의 력사를 가지게 되였으며 동방에서 첫 국가시대, 문명시대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단군의 후손으로서의 피의 동질성을 앞세우고 그것으로 그 어떤 차이도 뛰여넘어 동포사회의 단합을 이룩하는것으로써 민족최대의 숙원인 통일성업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화룡시 지부위원 정의철

인상기

내 청춘을 조국에



저는 처녀의 몸으로 고국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제3차 재로씨야동포관광단 성원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고국에서는 모두가 저를 친자식마냥, 친동생마냥 따뜻이 대해주었어요.

이에 대해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는 정말 철이 없는 인간이였어요. 글쎄 시집갈 나이가 다 되도록 자기에게 피를 물려준 조국이 뭔지도 잘 모르고 덤벙덤벙 지내왔으니까요.

평양에 가보고서야 저는 비로소 《아! 나의 조국이란 바로 이런 곳이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평양에 발을 들여놓는순간 저는 전설속의 그 무슨 신비한 세계로 끌려들어가는것만 같았어요.

화려한 고층건물들, 아름다운 유보도며 유원지들 그리고 산천경개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정말이지 보는것들마다 다 그림같았어요.

예로부터 인간의 모습이 산천에 어리고 산천의 모습이 인간에 어린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꼭 맞는가봐요.

저는 고국에 가서 청년들의 모습을 특별한 호기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점잖고 례절바르고 단정하여서 누구라없이 제마음에 꼭 들었어요.

거리에서 싸움질하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란잡하게 구는 청년은 찾아볼래야 찾아볼수가 없었어요. 만나는 청년마다 정이 가고 사귀고싶더군요.

그래 저는 생각하였어요. 고국의 청년들이 정말 잘 교양되고 믿음직하게 준비되여있구나 하고 말이예요.

이러한 청년들일진대 어찌 고국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인들 없겠나요.

저는 고국의 청년들이 평양시에서만도 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거리들을 일떠세웠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어요.

감동이 큰것만큼 《그래 너는 고국을 위해 무엇을 해 놓았니?》 하는 자책도 컸구요.

저도 이제부터는 고국의 청년들을 따라배워 고국을 위해 뭐든지 한가지라도 좋은 일을 해놓으려고 해요.

몸은 비록 고국에서 멀리 떠나있어도 슬기로운 고국의 청년들에게 뒤져서야 되겠나요. 이제부터 저의 청춘은 고국에 이바지하는 청춘이랍니다.

로씨야련방 싸할린주 샤흐쬬르스크시 아동병원 간호원 김이순

수기

영생불멸의 저서를 지침으로



최근 우리 동포들속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을 발표하는모임이 정열적인 분위기속에서 심화되고있다.

이것은 그 누가 구태여 조직해서가 아니다.

회고록이 배포되자 그것은 최대 인기로 되여 동포들은 너도나도 다투어가며 짬시간에도 읽고 또 읽군한다.

읽고나서는 저저마다 흥분하여 주석에 대한 끓어오르는 경모와 흠모의 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있으며 그 이야기는 자연히 읽은책발표모임으로 전환되군한다.

《우리 주석님같으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조국은 바로 이런분을 수령으로 모셨기에 오늘과 같이 세상에 찬란한 빛발을 뿌리고 있는것이다.》, 《주석님은 혁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한생을 통하여 우리 겨레에게 산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민위천》의 사상으로 일관된 주석님의 저서는 참으로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민족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감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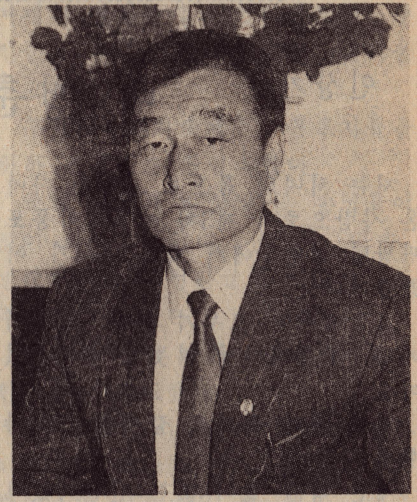
나는 《범민련》조직의 길림성 룡정지부 부책임자로서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을 지침으로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성업에 더욱더 분발해나가려고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주석님의 공명정대한 사상과 의지대로 우리 룡정지부 《범민련》 조직은 더욱 활기증진할것이다.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길림성
룡정지부 김선희

인상기

평양은 건축미의 도시



나는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데 가나 건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축물들을 놓고 흥미를 느끼는것이 직업적인 버릇으로 되여있습니다.

고국방문의 나날 나는 수도 평양의 모습에서 지울수 없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념비적건축물들로 가득 들어찬 평양은 나같은 사람을 매혹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특히 최근년간에 건설된 광복거리와 통일거리의 웅장화려함에 대해서는 직접 눈으로 보는것과 같이는 도저히 설명해낼수가 없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웅장하게 건설된 광복거리와 장쾌하면서도 무게있게 건설된 통일거리는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나는 지금껏 이름있는 도시들을 두루 돌아다녀보았지만 광복거리나 통일거리 같은 거리는 본적이 없습니다.

평양은 조형미와 립체미를 다 갖춘 자랑할만한 도시입니다. 해외에서 한생을 보내고있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개선문과 주체사상탑, 새롭게 건설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인민대학습당 같은 건물들은 건설적인 환상과 령감이 집대성되여있는것들이라고 해야 옳을것입니다.

더우기나 평양시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인민대학습당은 고전미와 현대미가 훌륭히 결합된 민족적형식의 건물로서 도서관이라기 보다 《책읽는 궁전》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여 평양시에 이런 훌륭한 건물이 많게 되였는가고 안내원에게 물었더니 평양시건설은 1970년대부터 더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평양시건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새롭게 날개를 펴기 시작하였다는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는 설계로부터 시공, 완성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을 이끌어주시였으며 또 지금도 이끌어주고계신다고 합니다.

최근년간에 평양의 곳곳에 즐비하게 늘어선 거리들과 우뚝우뚝 솟아있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그이의 세심한 가르치심이 깃들어있지 않는것이란 하나도 없다는것을 알았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군사의 탁월한 대가이실뿐아니라 건설에도 능통하신 건설의 대가이십니다. 나는 《금수강산》잡지를 통하여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꼭 한번 기회를 얻어 평양을 다녀가실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느끼게 될것입니다. 고국의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놓고 평양을 이토록 눈부시게 만들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예지와 령도의 비범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로씨야련방 싸할린주 유즈노
싸할린스크시 볼쉬나야 울리짜거리
36번지 최창준

고국방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을 탐독하고있는 해외동포들



재로씨야 고국방문단 성원들 모란봉의 최승대에 올랐다.



재로씨야 고국방문단 성원들 민속매대도 찾았다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일군들 동명왕릉을 참관



고국방문 기념으로

조선특산

강령고구마

우리 나라 서해안에 위치하고있는 강령반도는 고구마산지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강령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전분함량이 많으며 섬유질이 적은것이 특징이다.

지난날 이고장에서는 중승백호, 칠복종 고구마를 심었다.

최근 농업과학자들은 일조률이 높고 찰흙땅으로 되여있는 이 지방의 풍토에 맞는 새로운 품종 고구마를 육종하였다.

강령고구마의 당도는 21%~22%이며 경우에 따라 24%까지 이른다.

강령고구마는 수확하여 두석달 지나면 당화가 이루어져 당분이 27%~30%까지 올라간다.

강령에는 강령고구마가공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는 고구마가루, 고구마단묵, 고구마오가리를 생산한다.

고구마가루는 고구마를 말려서 낸 가루로서 영양가가 높고 저장하기도 좋다.

고구마가루로는 과자, 국수, 당면, 물엿, 술 등을 만든다.

고구마단묵은 고구마즙과 사탕 및 우무를 일정한 비률로 섞어만든것으로 대단히 맛이 좋다.

고구마오가리는 고구마를 일정한 두께로 썰어서 만든것으로 생고구마오가리와 찐고구마오가리가 있다.

생고구마오가리는 녹말, 식료가공품, 술 원료로 쓰며 찐고구마오가리는 기름에 튀기거나 그냥 간식으로 먹는다.

찐고구마오가리를 다시 단물에 담그었다가 말려서 먹으면 더욱 맛이 좋다.

군고구마는 삶은것보다 더 달고 비타민손실도 적다.



강령지방에서는 이고장 특산인 강령고구마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이 취해지고있다.

민족음식

오리찜튀기

음식감(4명, 1초소분)

오리	1.2 kg(한마리)	간장	20 g
생강	2 g	소금	3 g
파	30 g	기름(실소비)	100 g
마늘	10 g	계엽	2잎
소주	10 g	사탕가루	10 g
		바세리	20 g
		도마도	50 g
		오이	50 g
		맛내기	1 g
		후추가루	1 g



만드는 법

①오리는 털이 없게 손질한 다음 홍문우의 기름선을 떼버리고 피물이 없게 깨끗이 씻어 물기를 찌운다.

여기에 파토막, 마늘편, 생강편, 간장, 소금, 맛내기, 후추가루, 사탕가루, 계엽, 소주 등을 넣어 1시간 정도 재운다. 이때 2~3번 뒤집어준다.

②재운 오리를 그대로 찜솥에 넣어 30분 정도 쪄낸 다음 조미료들을 걷어내고 좀 식힌다.

여기에 간장과 사탕가루를 탄 즙을 고루 발라서 160~180℃의 기름에 연한 붉은 밤색이 나게 튀겨낸다.

③튀겨낸 오리를 각을 떠서 큰 뼈를 추려낸 다음 접시에 오리모양대로 담고 바세리, 오이꽃, 작은 알토마도 등으로 장식하여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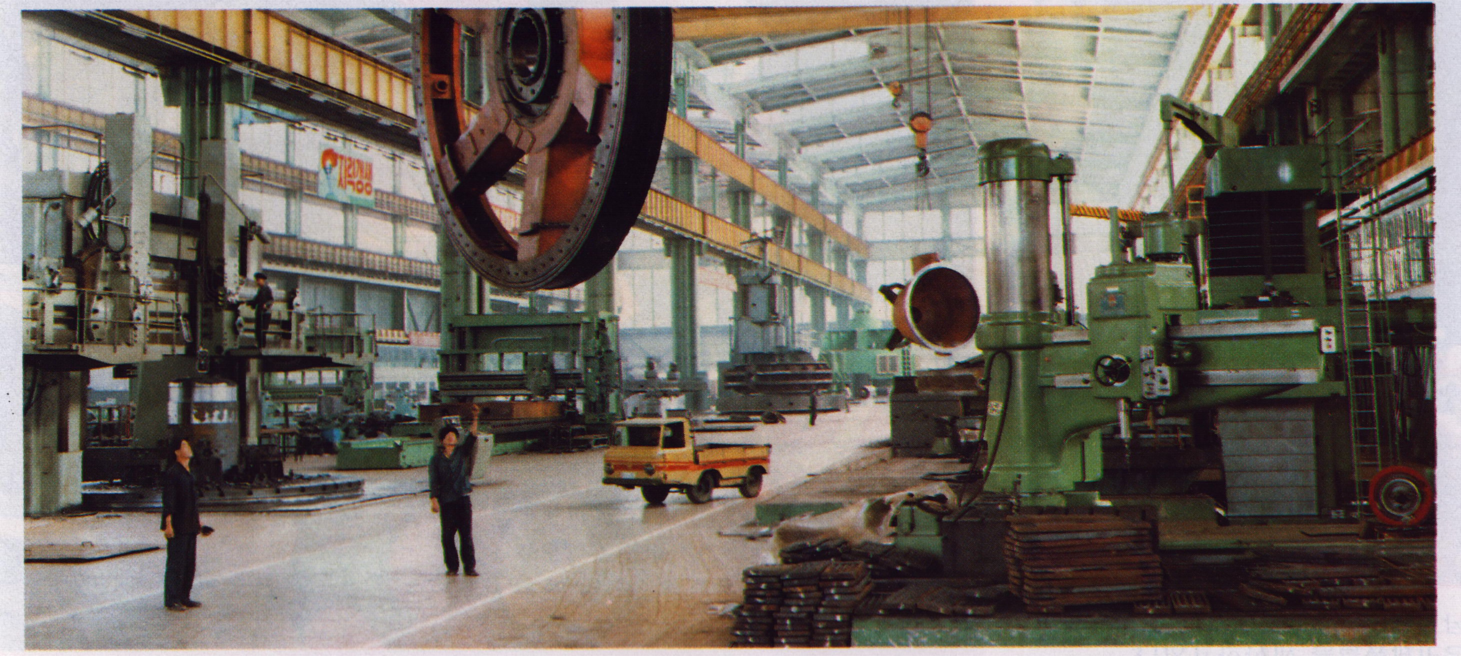
※ 맛있고 영양가높은 민족음식으로 주로 안주료리, 면회료리, 식찬 등에 쓰인다.

경흥관 김광연

남포시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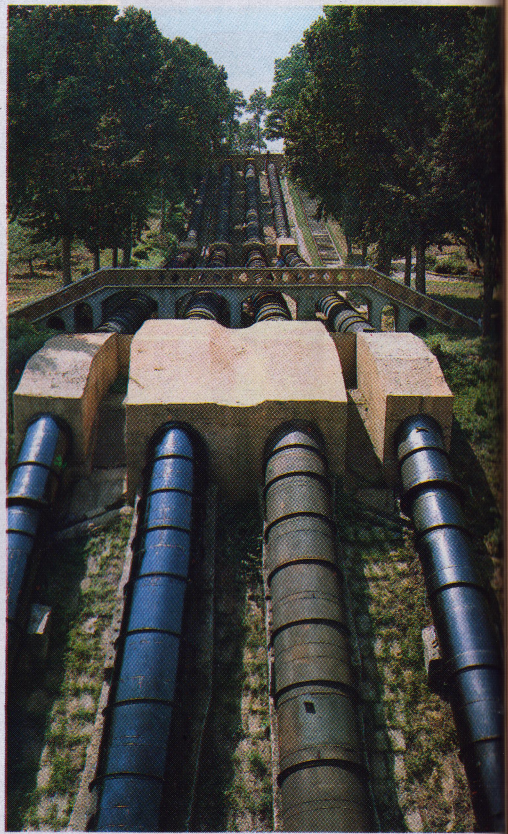
금성뜨락또르련합기업소 조립직장에서 뜨락또르를 조립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제1가공직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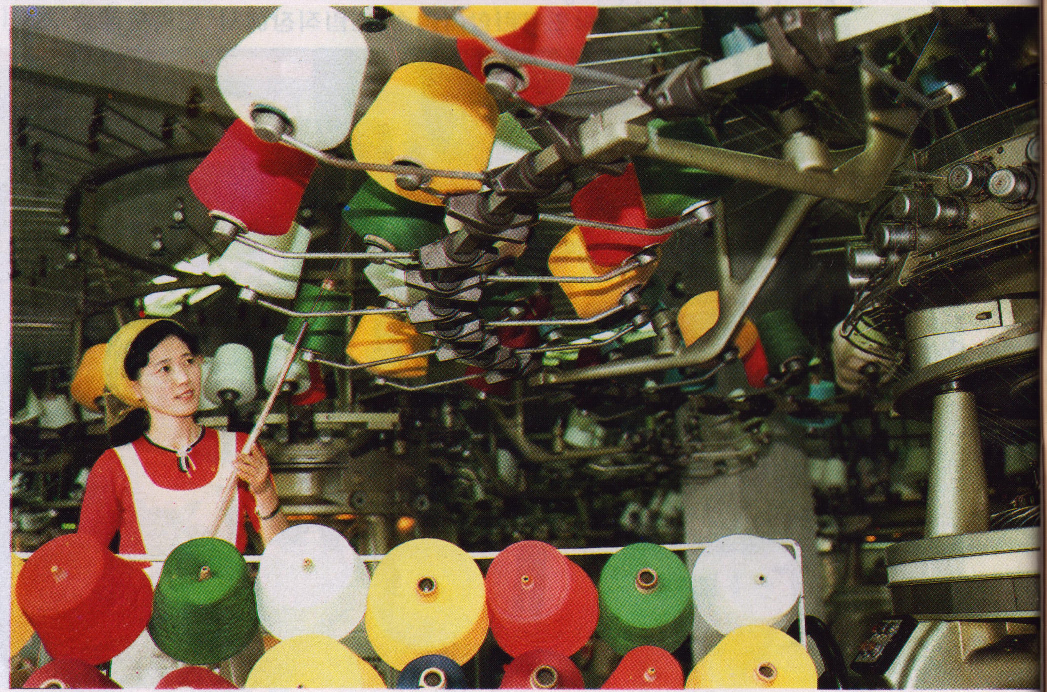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련속조괴기에서 강철기둥이 쏟아진다



기양관개 제2단 양수시설을 리용하여 물을 올린다

강서편직물공장 대환기직장





남포유리그릇공장에서는 질좋은 유리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남포시는 우리 나라의 강력한 공업지구의 하나이며 현대적인 농촌경리와 발전된 수산업을 가진 평양시의 위성도시이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과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청산리, 우리 식의 새로운 공업관리체계가 태여난 대안을 비롯하여 시의 이르는곳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주석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은덕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시 중심부와 천리마구역, 대안구역에 주석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으며 여러 곳에 혁명사적관과 현지지도사적비를 세웠다.

남포시의 공업은 흑색 및 유색금속공업, 기계공업, 유리공업, 화학공업, 채굴업, 경공업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그가운데서 금속공업, 기계공업, 유리공업은 나라의 전반적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시 공업에서 주도적인 부문을 이룬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는 일제를 타승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주석께서 고향 만경대에도 들리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주신 영광스러운 곳이며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운동의 첫 봉화가 타오른 자랑스러운 기업소이다. 이 기업소는 나라 형편이 몹시 어려웠던 1957년에 6만톤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오늘 종합적인 철강재생산기지로 전변된 기업소에서는 강철과 압연강재, 2차금속가공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시에는 남포제련련합기업소가 있다.

우리 나라의 주요 유색야금기지인 이 기업소에서는 현대적인 기술장비에 기초하여 각종 유색금속과 유색금속합금, 희유금속을 생산한다.

시의 기계공업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것은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의 생산이다.

전후에만 하여도 호미나 낫 같은 자그마한 농기구밖에 만들지 못하던 금성뜨락또르련합기업소가 오늘은 해마다 수만대의 뜨락또르와 각종 농기계들을 척척 만들어내는 기계바다로, 자동화의 노래높은 보람찬 일터로 되였다. 여기서는 《천리마》호, 《풍년》호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여러 형태의 뜨락또르와 벼종합수확기, 이동식벼탈곡기 등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고있다.

굴지의 중기계생산기지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여러가지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를 비롯한 동력설비들과 금속, 건재 공장설비 등이 일식으로 만들어지고있다.

이밖에도 시의 기계공업부문 공장들에서는 통신설비, 전극, 용접기, 용접봉 등이 생산된다.

남포시는 우리 나라의 강력한 유리생산기지이다.

시에는 몽금포와 구미포 일대의 질좋고 풍부한 모래를 원료로 하여 판유리, 광학유리, 무늬유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유리와 천여종의 각종 유리제품들을 생산하는 유리공장과 유리그릇공장이 있다.

생산된 유리제품들은 질이 좋아 다른 나라에까지 수출되고있다.

남포시의 경공업에서 보다 중요한 부문은 식료공업, 일용품공업, 방직공업이다.

특히 유리일용품, 도자기류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남포시는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산업과 축산업, 과수업 등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이 다같이 발전된 지역이다.

이미전에 기양관개가 실현되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됨으로써 시는 안전한 농업생산지대로 되였다.

기양관개는 대동강물을 퍼올려 수천리의 물길을 따라 룡강벌, 청산벌, 온천벌 일대의 논밭에 물을 대는 대규모의 현대적인 관개체계이다.

시의 농업에서 중요한것은 벼와 강냉이를 기본으로 하는 알곡생산이며 밀, 보리, 콩과 같은 작물들도 적지 않게 재배하고있다.

시에서는 주변협동농장들에 남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앞선 재배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단위당수확고를 높이고있다.

시에는 또한 닭공장, 돼지공장, 젖소목장들도 있어 근로자들에게 고기와 알을 원만히 공급하고있다.

시에서는 사과, 복숭아, 배, 포도 등 과일들도 많이 생산하며 특히 시의 남서부 서해안일대에서는 감도 재배하고있다.

강서구역 청산리는 우리 나라 농촌리들의 전형이며 공산주의농촌건설의 본보기단위이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청산리를 수많이 현지지도하시였으며 리가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청산리는 농촌경리의 공업화, 현대화 수준에 있어서나 알곡생산량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첫손가락에 꼽히고있다.

남포시는 서해안의 주요 수산기지이기도 하다.

시에는 현대적인 어로수단들로 장비된 남포수산사업소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수산사업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여있으며 어구공장, 서해수산연구소, 서해수산탐색대 등 수산부문의 기관들과 공장들이 있다.

또한 수천톤의 능력을 가진 랭동공장과 물고기통졸임공장을 비롯한 수산물가공기지들도 튼튼히 꾸려져있다.

시에서는 바다가양식, 담수양어도 발전시키고있다.

오늘 남포시의 경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용호

봉건국가 신라

우리 나라에서 고대노예소유자국가들이 쇠퇴몰락하고 노예제사회로부터 봉건사회로 이행하던 시기에 오늘의 경상북도 경주지방에 자리잡고있던 신흥봉건세력들은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를 세우고 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봉건국가를 수립하였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백제 다음에 일어선 신라이다.

신라의 건국년대는 대체로 기원 1세기초중엽이라고 보아진다.

조선반도중부이남의 동쪽지방에서 발족한 신라는 원래 고조선의 령역에 속해있던 진한땅이였다.

삼한(진한, 마한, 변한)의 하나였던 진한은 원래 6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있었다. 그러던것이 점차 갈라져서 12개의 소국으로까지 되였다.

그가운데 하나의 소국이 바로 오늘날 경주지방에 자리잡고있던 사로국이였다. 그러므로 사로국은 새로운 봉건국가로 일떠선 신라의 전신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 사로국에는 외래침략세력에 의해 고조선이 멸망하기직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특히 기원전 2세기말 고조선이 존재를 끝마친 이후에는 더욱더 많은 고조선유민들과 고구려주민들이 사로국을 비롯한 따뜻한 삼한지방으로 옮겨와 살았다.

이와같은 사실은 이 지역에서 발굴된 좁은놋단검들과 문화유물들, 청동기들, 철기들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신라의 건국설화에서 나오는 6촌(여섯개의 소국을 의미함.)주민들의 조상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것은 그 《조상》들이 바로 북방의 고조선이나 고구려 등지에서 온 이주민들이였다는 사실을 신격화하여 반영해놓은것이다.

고조선, 고구려 지역에서 주민들이 대거이동해온 결과 삼한땅에서는 생산력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선진문화가 창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낡은 노예적생산관계가 생산력과 문화의 발전을 심히 억제하였다.

그리하여 기원전 2세기말경에 이 지역 특히 진한땅에서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노예들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강화되였다.

이와같은 사정은 노예제도의 붕괴를 촉진하였다.

한편 철제농기구의 광범한 리용에 따르는 생산의 증대와 함께 지주들이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떼맡겨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의 많은 부분을 수탈하는 봉건적 경리형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을 대표하는 신흥봉건세력들이 자라나게 되였다.

기원전 1세기초엽에 이르러 사로국에서는 이러한 봉건적토지소유관계가 지배적인것으로 되였다.

봉건제도에 기초한 나라로 된 사로국은 점차 린접 소국들과 정치세력들을 자기의 영향밑에 두게 되였고 진한내부에서 주도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사로국을 비롯한 진한의 여러 소국들은 당시 약화몰락되여가고있던 마한(진국이라고도 한다.)의 예속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였으며 독자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사로봉건소국을 모체로 하여 형성된 신라는 기원 1세기초중엽에 이르러 독자적인 나라로서 봉건적인 국가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출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는 건국년대가 고구려나 백제의 건국년대보다 200년이상 뒤에 놓이는 나라이다.

신라의 건국설화 역시 고구려의 창건자 고주몽에 대한 설화나 가야국(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우리 나라 남부지방에 한동안 존재했던 다른 하나의 작은 나라)의 수로왕에 대한 설화 등과 같이 첫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신격화된것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있는데 이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같은 문화와 생활풍습을 가진 하나의 우리 겨레에 의해 세워진 나라들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신라는 성립된 때로부터 900여년간 봉건국가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가져다준 나라였다. 신라통치배들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킬 야욕밑에 외래침략자들에게 대동강이북의 넓은 땅을 떼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우리 나라 땅에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외래침략세력을 등에 업은 신라통치배들은 660년에는 백제를,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신라봉건통치배들의 사대매국적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겨레는 결국 선조들이 개척한 광대한 령토를 잃어버리게 되였으며 국력은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그 위세를 크게 떨치던 고구려시기와는 대비할나위도 없이 심히 약화되였다.

고구려, 백제가 멸망한후에도 우리 겨레는 우리 나라 땅을 저들의 지배밑에 넣으려고 꾀하는 외래침략세력을 완전히 쫓아버리기 위해 10여년간이나 피어린 항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사대망국의 치욕의 력사는 이렇듯 신라통치배들의 반민족적, 외세의존적인 행위에 의해 시작되였으며 그것은 후손들에게 영원히 보상될수 없는 죄악을 남기였다.

사대매국은 곧 망국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오늘날 남조선의 적지 않은 력사가들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민족의 총체적력사는 신라가 아니라 바로 사대주의가 없었던 고구려를 중심으로 정립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력사학박사 전준현

력사의 오물들은 제거되여야 한다

얼마전 이전 쏘련지역에서 살고있는 한 교포가 본사 편집부앞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여왔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의 주소, 성명을 밝히지 않고 편지의 전문을 아래에 공개한다.

먼저 우리 해외교포들의 친근한 벗으로 되고있는 잡지 《금수강산》의 편집과 발행에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여러 선생들에게 동포애적 인사와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선생들도 다 리해하시는바와 같이 고국은 해외에 사는 우리 교포들에게 잊을수 없는 곳이다.

두동강이 난 고국땅, 동족끼리 반목질시하는 불미스러운 현 상황에서 심한 아픔을 수감하고있는 우리 교포들도 90년대에는 어떻게하나 분단민족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종결지으려는 고국인민들의 통일열망에 편승하여 해외각지에서 성의있는 노력들을 경주하여왔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의 집권자들은 하나로 응집되여가는 통일애국세력에 칼질을 하고 교포사회의 내분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반민족적인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있으니 실로 통분한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집권자들이 돈으로 해외 여러 지역에 있는 가증스러운 민족반역자들을 규합하고 여기에 우리 지역의 리상조, 유성철, 정상진 따위 인간추물들을 끌어들여 사람들로부터 《검은손 연출, 산송장들의 개방무도회》로 지탄받고있는 모략단체를 조작해낸것만 보아도 그렇다.

이 놀음이 해내외동포들의 한결같은 통일의지의 산아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에 맞서보려는 남조선 《안기부》의 소행이라는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 단체에 망라되여있는자들의 대부분이 자기를 내세워준 고국을 배반한 반역자들이며 자기의 부모처자들을 욕보인 패륜패덕한들이며 신념이 없고 부패타락한 인간쓰레기들이라는 점이다.

남조선집권자들의 지휘봉에 따라 이 더러운 인간들이 벌리고있는 모략선전에 대해서는 더 쓰지 않겠다. 그것은 그 내용이 남조선의 어용선전수단들과 매문가들이 수십년간을 읊조려온 낡은 곡조의 련속이며 그 허위성이 이미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기때문이다.

내가 구태여 이 글을 쓰게 되는것은 대세에 역행하여 민족을 반대하는 범죄행위에 피를 묻고나선자들의 정체와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간주하였기때문이다.

변절자 리상조

리상조는 쏘련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로 있다가 1957년에 고국을 배반하고 도주한자이다.

그는 한때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의 요직에 있었고 조선정전담판 조중측 위원의 경력도 가지고있다.

따라서 그의 배신행위에는 키워준 조국에 대한 반역, 자진하여 들었던 정치조직에 대한 배신, 군인선서에 대한 배반 등 3중의 의미가 있다.

변절과 배신은 정치적신념과 지조가 없는자의 작태이다. 한데도 리상조는 자신을 《정치망명자》라고 자칭하고있다.

변절의 명수인 리상조가 마치도 자기에게 그 무슨 정치적신념이라도 있은듯이 떠벌이고있으니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리상조는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배신한 반역자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리상조는 고유한 의미에서는 해외교포가 아니다.

이런자가 요즘은 이러저러한 모략단체들에 코를 들이밀고 자기가 마치 이전 쏘련지역의 해외교포들을 대표하는듯이 둔갑해나서서 분수없이 날뛰고있다. 그야말로 백로속에 끼여든 까마귀와 같이 꼴불견이기 그지없다.

배신자는 배신을 자기의 유일한 생존수단으로 삼는다.

리상조는 1992년 1월부터 범민족통일운동체인 《범민련》을 적대시하여 조작된 유령단체에 가담함으로써 이번에는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해내외의 전민족까지 배신하여나섰다. 이렇게 되여 리상조는 배신과 변절의 세계적인 기록보유자로 일약 《명성》을 떨치게 되였다.

리상조의 비루한 진면모는 남조선에 가서 그가 한 행동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1989년 9월 남조선에 갔을 때 그는 《정무제1장관》 박철언을 만나 충실한 하수인이 될것을 확약하였으며 조선전쟁발발의 진상을 외곡하고 북조선의 제도를 비방중상하느라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날뛰였다. 당시 남조선의 언론은 리상조의 언행과 관련하여 《그가 한 말은 그를 불러들인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던 말》(《조선일보》 1989. 9. 19)이라고 평하였다.

배신의 대가로 《풍성한 대접》을 받은 리상조의 몰골이 어찌도 가관이였던지 남조선의 언론들도 《련일 텔레비존과 신문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꼭 해외에 나가서 커다란 공을 세우고 금의환향한 자랑스러운 로인같기만 하다.》고 야유하는 정도였다.

1990년 6월에 남조선에 불리워갔을때도 리상조는 배신자의 추악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이때 남조선의 어용보도선전기관은 1951년에 있은 조선정전담판회의때 《유엔군》측 대표로 끼여나왔던 백선엽과 리상조의 《상봉》을 조직하

였다. 《오랜 지기》들사이의 《회포》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백선엽은 지난 1951년 정전담판회의때 리상조가 자기에게 《제국주의주구는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고 붉은색연필로 써서 내보였던 일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리상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어물쩍해버렸으며 《남은 일생을 잘못된것을 고치는데 바칠 생각》(《동아일보》 1990.6.27) 이라고 깊이 《사죄》하였다.

어제날 상가집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자기가 타매했던자앞에서 잘못을 빌며 용서를 애걸하는 오늘의 리상조를 과연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그러한 리상조가 다음날에는 남조선기자들앞에서 자기는 《공산주의자, 변함없는 직업적혁명가》라고 미친소리를 하여 장내에 폭소를 터뜨렸다.

매춘부가 정조자랑을 한대도 이보다 더 사람들을 웃기지는 못할것이다.

배신의 시궁창속에서 리성마저 잃어버린 리상조의 망동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런 인물까지도 모략선전의 나팔수로 써먹지 않으면 안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처지 또한 가긍하기 짝이 없다.

리상조는 인간적으로도 이미 자기의 가치를 상실한지 오랜자이다.

그의 너색은 오래전부터 소문이 났다. 그는 고위직에 있을 때 일은 하지 않고 숱한 너성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고있었으며 자기의 더러운 행위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자식들앞에서 쩍하면 처를 구박, 구타하군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지난날의 앙갚음을 톡톡히 받아 처와 딸자식에게서 쫓겨나 여기저기를 방황하는 신세가 되였다.

리상조는 다 죽게 된오늘에도 자기가 배반한 조국의 군복과 견장, 훈장을 착용하고 거들먹거려 뭇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는 극도의 파렴치한이기도 하다.

이전 쏘련지역에 살고있는 교포들은 이런 리상조를 가리켜 《미쳐도 더럽게 미친 로망쟁이》라고 부르며 침을 뱉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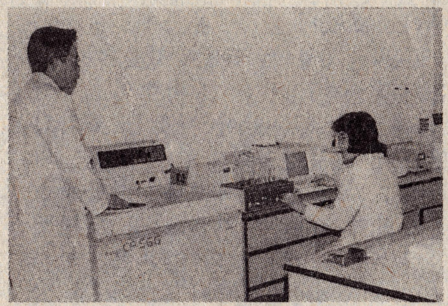
리상조는 물욕에서도 두번째가라면 서러워할 위인이다.

지어 그는 초보적인 량심도 체면도 없이 조국에서 우리 지역의 로병위원회성원들에게 보내여오는 선물과 기념품들을 자기도 가지겠다고 손을 넙적거려 교포들의 미움을 받고있다.

이런 추물, 이런 인간쓰레기와 한 하늘밑에서 같이 호흡하고있다는것은 상기하기조차도 불쾌한 일이다.

(다음호에 이음)

토막소식



△ 애국예방약생산공장 준공식 진행

통일거리에 현대적설비를 갖추고 일떠선 애국예방약생산공장이 준공되였다.

새로 일떠선 통일거리에 또하나의 현대적 설비와 시설을 갖춘 애국예방약생산공장이 준공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고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더 잘 관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 제7차 동아세아경기협회 회의 평양에서 진행

제7차 동아세아경기협회 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 몽골, 중국대북, 남조선의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하였고 괌도올림픽위원회 대표가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회의가 끝난다음 회의결과보도문이 발표되였다.

보도문은 회의에서 제2차 동아세아경기대회 준비진척정형을 청취하고 그에 만족을 표시한데 대해서와 경기협회규약(초안)을 토의하고 더 완성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지적하였다.

보도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회의는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동아세아경기대회를 1995년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14개 종목 즉 축구(남, 녀), 롱구(남, 녀), 배구(남, 녀), 송구(남, 녀), 탁구(남, 녀), 권투(남), 력기(남), 레스링(남), 유술(남, 녀), 체조(남, 녀), 륙상(남, 녀), 사격(남, 녀), 조정



(남, 녀), 수영(남, 녀)으로 진행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회의에서 제기된 다른 10개 종목 즉 태권도, 자전거, 골프, 보링, 바드민톤, 활쏘기, 정구, 연식정구, 지상호케이, 무술에 대하여서는 성원민족올림픽위원회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앞으로의 협상을 통하여 다음번 동아세아경기협회 회의에서 상기 10개 종목중 일부를 포함하여 최종 종목수를 승인하도록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여 선택할것을 제2차 동아세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위임하였다.

회의는 제2차 동아세아경기대회 상징마크와 상징동물을 승인하였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

전 인민군종군기자 리인모의 수기

(전호에서 계속)

…그로부터 한주일쯤뒤 역시 전향강제고문에 시달리던 황필구동지가 리동지의 뒤를 따랐다. 그는 《네놈들이 절대 우리를 다 죽이진 못한다. 동지들중 단 한명만 살아나가도 진실은 날날이 밝혀지고 민중과 력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88년 10월 27일 들어올때만큼이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옥문이 열렸다. 석방이라는것이다. 서른여섯에 시작된 감옥살이가 일흔돌에 끝난것이다. 이때의 심정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으므로 생략하고 형사들이 나를 과천시의 구세군양로원으로 데려가는동안 차안에서 만감이 교차하기에 불러보았던 노래 하나를 여기에 소개한다.

옥문을 나서며

쥐구멍도 해볕들 날
있다는 말 있듯이
참말로 쥐구멍에
해볕들고말았는가

들어오는 문만 있고
나가는 문 없던 이곳
나가는 문 열렸으니
이 어찌된 영문인가

분렬된 조국에서
반목하던 형제들이
인제 마음 돌렸는가
아니 세상 미쳤는가

순진한 고운 얼굴
소박하게 살짝 짓는
소녀의 미소같은
그런 평화 왔는가

어둠속에 불시 해빛
눈부시여 못뜨는데
건드리지 말아다오
잠간 생각 잠겨보게

얼마만에 밟았는가
사회흙내 구수한데
여게 나를 쉬게 하라
조국이여 형제여

내가 나온후 감호소에 남아있던 동지들은 89년 5월까지 모두 출소하였고 수많은 동지들의 피와 땀을 묻었던 청주보안감호소는 마침내 문을 닫았다. 어떤 동지가 계산해보니 끝까지 감호소에 있다가 출소한 51명 우리 동지들이 살아온 징역의 해수는 도합 1,590년, 1인당 평균 29년이라는 기간이 되더라고 한다. 단지 의견이 다르다는 리유로 인간이 인간을 30여년씩이나 가둬둘수 있단말인가. 당사자중의 하나인 나자신조차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였다.

10. 살아남은자

영문모르고 실려와 머무르게 된 과천시의 구세군양로원.

보안감호소에 가둬두라는 보안감호처분이 주거제한처분으로 변경되였을뿐 자유로운 시민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주거지가 있는 행정구역을 허가없이 벗어나서는 안되였다. 벗어나고자 할 때는 관할경찰서에 나간다고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 떠나야 하고 내가 방문한 행정구역의 경찰서에 가서는 왔다고 신고를 해야 하며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3개월에 한번씩 그동안의 생활을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는것이다. 내 마음대로 이사를 갈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모든 부자유는 내가 《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는자》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결국 눈에 보이는 쇠사슬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바뀌였구나싶었다.

양로원생활은 상당히 힘들었다. 배가 고프거나 추위에 떠는것도 아니였는데 늘 마음이 편치않았다. 그다지 사교적이지 못한 내 성격탓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로원생활이 내가 30여년간 동지들과 함께 해온 공동체생활과 너무나 다르다는데 있었다.

보리밥 네숟가락에 배를 곯으면서도 삼엄한 감시를 피해 동지에게 빵 한봉지라도 건네주려고 한주일을 벼르던 우리 동지들의 삶의 자세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얼마후 나는 내가 양로원로인들사이에 《새로 온 바보늙은이》로 통하고있음을 알게 되였다. 시비를 걸어도 반응이 없는데다 제 먹을것을 죄다 남주어버리니 바보로 보였던 모양이다.

한방로인들은 낮이면 방에 붙어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모두들 구경거리나 소일거리를 찾아다니는것 같았다. 그토록 보고싶었던 책들을 보는데는 안성맞춤의 환경이였다. 그런데 막상 책을 들고 앉았노라면 활자사이로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르군하였다. 《조국통일 만세!》를 웨치며 산에서, 형무소에서, 감호소에서 죽어간 수많은 조국의 아들, 딸들, 34년 감옥생활로 청춘은 가버리고 이제 백발이 되였다 한들 내 어찌 그들을 잊을것인가.

갑자기 사회로 나와 어리둥절하여 바보마냥 지내다보니 세월은 빨라 어느덧 해가 바뀌였다.

1900년생이니 살아계시다면 어머니는 아흔이시겠지. 하지만 아직껏 이 세상에 계시리라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홀어머니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중로동으로 청춘을 보내신분이 며느리, 손녀 얻어 잠간 삶의 재미를 맛보시는듯 하다가 다시 유복자아들을 잃으셨으니 그 마음의 심화가 오죽하셨을것인가.

새해아침 어머니를 생각하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썼다. 다 써도 부치지도 못할 편지, 부친다 해도 받아보실분이 안계실 편지였다. 소용없는짓인줄은 알고있으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수가 없을것 같았다. 비록 부칠수도 없는 편지였지만 그것은 어머니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였으므로 나는 그 편지를 간직해두었다.

한달쯤 지났을가. 89년 3월초였던것 같은데 내게 편지가 한장 왔다. 워낙 오래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지라 오랜만에 해보는 일들뿐이였지만 편지받는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기한 마음으로 겉봉을 보니 《말》지의 신준영이라는 기자가 보낸것이였다. 뜯어보니 내가 쓴 편지가 《말》 89년 4월호에 게재될것인데 책이 나오면 책과 원고료를 가지고 찾아오겠다는 내용이였다.

3월말쯤 신기자가 찾아왔다. 이름과 글씨로 보아 청년이리라 짐작했었는데 뜻밖에 녀학생같은 녀기

자였다. 그런데 체구도 조그마한 사람이 상당히 큼직한 짐꾸레미를 들고왔기에 뭔가 했더니 창간호부터 그달까지 발간된 《말》지 34권을 모두 싸들고온것이였다.

《오래동안 신문도 못보셨을텐데 저희 책을 훑어보시면 정세를 리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그 무거운걸 어떻게 들고왔소?》

《선생님께서 아직 〈말〉지를 모르실것 같아서 직접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제일 빠르겠다싶어 힘 좀 썼습니다.》

신기자가 다시 한쪽 꾸레미를 풀어 내게 주는데 한 천장은 될듯한 원고지와 펜 수십자루였다.

《선생님께서는 원래 기자의 임무를 띠고 남쪽에 내려오셨는데 감옥사시느라 그 일을 다 못하셨다고 봐야겠지요. 이제는 못다 쓰신 기사를 완성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펜과 원고지를 가져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장 발표하시든 발표를 보류하시든간에 구멍뚫린 력사의 페지를 복원하기 위해 그간 헤쳐오신 격동의 력사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기록해나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즈음 나 역시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골똘히 하고있던터였다. 전쟁직후 수만명에 달했다는 좌익수들의 수를 생각하면 감호소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우리들 51명 동지들은 모두들 자신의 활동령역에서 살아남은 단 한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단 한사람만 살아남아도 력사에 진실을 증언할것이라 웨치며 죽어간 동지들, 혹은 유언조차 남길새없이 지리산에 뼈를 묻은 동지들, 그들을 위해 살아남은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를 자문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80년대에 성장한 젊은 후배의 입에서 역시 같은 얘기를 들으며 나는《이것이 력사와 시대의 요청일것이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시대의 요청을 재확인해준 젊은 후배의 지적과 그가 가져온 원고지 둘 다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

89년 5월《사회안전법》이 페지되였다고 하더니 곧 이어 6월 16일《보안관찰법》이란 새법이 대신 생겨났다. 《사회안전법》에서 보안감호조항, 즉 감호소에 집어넣는 처분은 없어지고 보안관찰과 주거제한처분만이 남았다. 언뜻 보면 감시가 약화된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였다. 보안관찰이나 주거제한처분을 당하는 우리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여러 항목에 걸쳐 자세하게 또 자주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있는데 이를 어길 때는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조항이 붙어있었다. 즉 변화는 감호소대신 교도소라는것일뿐이다.

이 법에 의하면 나는 담당형사가 가지 말라거나 만나지 말라는 사람은 만나서는 안되며 그들이 부르면 반드시 달려가야 하고 그들이 정해주는곳에서만 살아야 한다. 하여간 이 모든것중 어느것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교도소에 보내 2년이하의 징역을 살리겠다는게 새로 공포된《보안관찰법》이였다.

나는 89년 봄부터 원고를 조금씩 쓰고있었다. 내가 겪은《한국》현대사와 그속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투쟁의 모습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거제한이라는 딱지아래 감시당하고있는 내 처지에서는 집필조차도 남의 눈을 피해야 했다. 우리들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있고 그들은 또 우리들의 력사가 사회에 알려지는것을 결단코 막으려 할것이기때문에 세상에 발표할 시기가 올 때까지는 원고를 안전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그래서 같은방 로인들이 외출했다 돌아오는 저녁시간이후에는 눈을 감고 머리속으로 옛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그들이 나가고 없는 낮동안 그것을 원고지에 옮기군하였다.

집필은 아주 더디게 진행되였다. 써나가다보니 빠뜨리고 지나왔구나 싶은 부분이 뒤늦게 생각나군하였지만 우선 초고를 완성해서 안전하게 보관해놓고 다시 틈틈이 보충하는게 좋을것 같아 초고를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서둘렀다.

여름이 다 갈무렵에야 초고가 완성되였다. 한번 써놓고 제대로 되였나 다시 읽어볼 틈도 없었으므로 문장은 거칠고 구성도 치밀하지 못한 글이였지만 나로서는 너무나 소중한 글이였다.

그후 내가 쓴 글은《전 인민군종군기자 수기》라는 부제아래《말》지 89년 10월호부터 90년 1월호까지 네번에 나뉘여 실렸다. 그 글이《말》지에 발표된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수기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고 과분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있다. 그들이 내게 건네는 정성은 나하나가 아니라 내가 기록한 력사속에서 활동했던 모든 동지들을 향한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죽고 나는 살아있음으로 사람들은 나를 통해 죽어간 동지들을 보려하는것이리라.

11. 기다림

나름대로 분주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있었다. 90년 12월 20일경이였던가. 《말》지의 신기자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무슨일인가 의아해하는 나를 양로원근처의 조용한 다방으로 끌다싶이 데리고가더니 그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였다. 한 독일교포가 《말》지에 실린 나의 수기를 보고 편지를 보내왔는데 나의 가족소식이 들어있다는것이다.

편지를 들여다보는데 도대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안경이 없어도 그 정도는 읽을수 있는데 보고 또 봐도 읽어지지가 않았다. 그 눈치를 알았던지 신기자가 설명을 해주었다.

《편지를 보낸분은 신옥자라고 하는 독일교포아주머니입니다. 서독에 간호원으로 취업해갔다가 그곳에 정착한분인듯 합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말〉지에 실린 선생님의 수기를 읽고 선생님을 도울 방법이 없을가 생각하던중 마침 지난 8월 범민족대회때 평양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발행되는 〈통일신보〉기자에게 〈말〉지를 보여주면서 선생님의 가족을 찾아보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답니다. 그후 독일에 돌아와 한 석달만에 〈통일신보〉기자에게서 회답을 받았는데 사모님과 자녀분이 평양에 살고있다고 적혀있더랍니다.》

신기자가 말을 이었다.

《선생님께서 사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한통 쓰셨으면 합니다. 그 글을 저희 책에 실으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사모님께서 읽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내 쓰리다.》

더 앉아있기가 힘들어 이 말을 남기고 편지를 들고 일어섰다.

얼굴도 모르는 교포아주머니덕분에 나는 91년 새해를 정말 기쁘게 맞이할수 있었다.

이처럼 기쁘게 맞이한 새해에는 또 새로운 사람과의 뜻깊은 만남이 준비되여있었다. 지금 나를 돌보고 있는 김상원씨를 만나게 된것이다.

작년부터 북측이 전쟁포로인 리인모를 제네바협정에 따라 송환하라고 요구해나서자 남측은 《그는 전쟁포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남측이 내가 전쟁포로라는것을 인정하면 제네바협정에 따라 나를 송환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점을 결코 인정할수 없었을것이다.

물론 평생을 반공리념에 묻혀 살아온 사람들로서는 나를 고향에 보내는 행위는 자신이 일생 견지해온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지 않는 한 결코 용납할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로 총을 들고 싸웠던 형제들이 반세기를 끌어온 랭전적대립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갈것을 합의한 오늘이 아닌가. 7천만 겨레모두에게 이 시대는 과연 무엇을 요청하고있는가.

내가 안해와 아이들이 있는 평양에 가고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차라리 안해의 소식을 몰랐을 때보다 뻔히 알면서 가지 못하고있는 지금이 더 고통스럽다.

하지만 나에겐 한시라도 빨리 고향으로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보다 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 그것은 민족의 진정한 화해다.

모든 대결의 과거를 청산하고 남과 북이 동포애, 형제애로 돌아가 화해하고 단결하여 통일조국을 향해가는 가슴벅찬 도정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소원이다. 나는 이 소원을 간직한채 오늘도 김선생댁의 남향방에 한개 바위돌처럼 앉아있다.

이제는 손이 떨려 더이상 글도 쓰지 못할것 같다. 작년에 받은 뇌수술의 여파인지 나의 머리는 명료한 사고능력을 잃어가고있다.

손도 발도 머리도 쓸모없게 된 나이기에 나는 이제 정성어린 기다림을 시작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지 않던가.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한 로인이 마지막기력을 쏟아붓는 이 간절한 기다림이 분단의 장벽을 녹이는 한줌 온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나는 기다림의 나날을 계속하고있다.

(끝)



겨레의 지향

△ 코리아통일미술전에 참가한 북과 남, 해외 대표들이 도꾜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통일의지를 표명하였다.

공동성명은 장장 반세기에 걸치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가슴아파하면서 통일에 대한 절절한 념원을 그림에 담아온 북과 남, 해외 동포미술가들이 해외에서나마 분단이래 처음으로 상봉하게 된 감격과 기쁨은 이루 다 표현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코리아통일미술전은 북과 남, 해외 동포미술가들의 력사적인 첫 만남이며 7천만 온 민족의 가장 급박한 숙원인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욱 고양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였다.

이기간 북과 남, 해외 동포미술가들은 한피줄을 이은 겨레로서 뜨거운 동포애적정을 나누었으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미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공동의 과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합의하였다.

성명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북과 남, 해외 동포미술가들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한 나라의 통일을 성취하며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이바지할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2.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과 온 겨레의 대단결의 정신에 따라 민족의 정기와 아름다움을 구현한 코리아통일미술전을 통하여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벽을 깨고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3. 우리는 민족미술을 발전시키며 조국통일주제의 미술창작활동을 적극 벌려 코리아통일미술전의 정례적개최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4. 우리는 코리아통일미술전의 진정한 발전에 저해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문학예술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조선속담

• 강한 장수에게는 약한 군사가 없다

지략이 있고 지휘능력이 있는 장수는 군사를 잘 쓰기때문에 그러한 장수의 지휘밑에서는 무능한 군사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이르는 말.

• 소힘도 힘이요, 새힘도 힘이다

큰 힘이나 작은 힘이나 차이가 있을뿐 다 같은 힘이라는 뜻으로 각자는 자기의 힘과 능력에 따라 맞춤한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 벌도 왕벌이 있다

어떤 일에서나 그일을 주동적으로 이끌고나가는 선구자가 있어야 함을 비겨이르는 말.

• 닭이 천이면 봉이 한마리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속에는 반드시 뛰여난 인물이 있기 마련이라는 뜻.

《핵》소동에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남조선의 김영삼괴뢰도당은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적인 《핵》소동의 돌격대로 나서서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적행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남조선의 괴뢰도당은 우리의 《핵무기개발의혹》에 대해 떠들면서 안으로는 북남대결과 전쟁을 선동하고 밖으로는 《국제공조체제》를 집요하게 추구해나서고있다. 얼마전에도 김영삼괴뢰는 《시정연설》이라는것을 하면서 우리의 《핵문제》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며 《국회》에서는 무슨 《대북결의안》이라는것까지 채택하였다. 김영삼괴뢰도당은 우리의 《핵개발》을 걸고들며 《군사적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는 극히 호전적인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알려진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란 북이 아니라 남에 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과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이 숱한 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배비함으로써 생겨난것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외세의 핵전쟁전략에 추종하여 여러가지 대규모적인 핵전쟁연습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그러면서 외국의 《핵우산》밑에서 자체의 핵개발도 적극 다그치고있다. 이런자들이 우리에게 핵문제가 있다고 떠드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행위이다.

우리는 핵무기자체가 없으며 또 그것을 개발할 의사도 힘도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조선괴뢰도당이 《북의 핵개발의혹》에 대해 소동을 일으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자는데 있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제압하고 《승공통일》을 꿈꾸며 북반부에 자유화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괴뢰군안에 《북진》부대까지 편성해놓고 북침전쟁소동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는 한편 군사적힘으로 우리를 제압해보려고 나선것이다.

그들이 한사코 우리의 《핵문제》를 국제화하려 하면서 이제 필요한것은 우리에 대한 《제재》뿐이라느니 뭐니 하고 《국제공조체제》를 악랄하게 추구해나서는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최근에는 그런 망동이 저들의 무슨 《군사적대응》을 운운하는데까지 이른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들의 《핵》소동은 또한 저들의 《정권안보》를 위한데도 목적이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자주적평화통일기운이 높아가는 가운데 집권세력의 매국반역통치에 대한 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괴뢰들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의존정책과 파쑈와 대결, 전쟁책동, 반통일분렬주의적인 《창구일원화》책동과 북남대화의 전면동결 등 모든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들은 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문민》의 간판을 걸고 감행하는 괴뢰도당들의 이른바 《개혁정치》라는것이 실속없는 겉치레뿐이며 인민들에 대한 기만우롱행위에 불과하다는것이 드러나면서 현집권세력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지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들은 모략적인 핵소동으로 인민들의 눈길을 딴데로 돌리고 저들에 대한 인민들의 불평불만을 희석시킴으로써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 하고있다. 이런 속심은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들며 북남대화의 진전이 없는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 한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들의 《핵》소동은 또한 그것을 통하여 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실현에 제동을 걸어보려는데도 목적을 두고있다. 북남사이에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된후 이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의 그릇된 자세와 립장에 기인하고있다. 그들은 북남사이에 일정에 올랐던 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동결상태에 빠뜨렸으며 핵문제를 포함한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쌍방특사교환제의도 성실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전쟁연습을 중지하고 《국제공조체제》를 포기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명백한 태도표명을 회피해나섰다. 더우기 북남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위한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남조선괴뢰도당은 《군사적대응》을 운운하면서 더욱더 대결의 길로 나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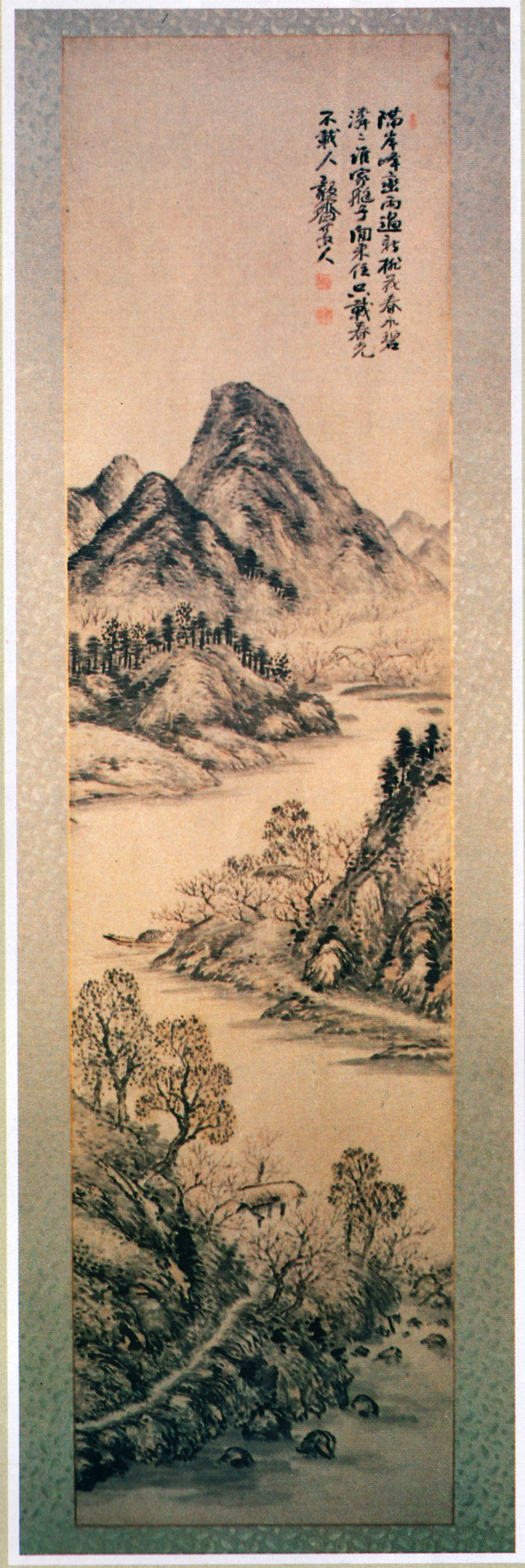
조미회담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여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비핵화실현의 넓은 길을 열어놓는것으로 될것이다. 이로부터 남조선괴뢰도당들은 조미회담에서 미국이 더이상 양보해서는 안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조미회담의 앞길을 막아나서고있다. 그들은 저들의 머리우에 씌워진 《핵우산》이 하늘로 날아나고 자체 핵무장화의 길이 막히는것을 몹시 두려워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들이 《북의 핵문제》때문에 당장 변이 나는것처럼 떠들며 동분서주하는것은 어떻게 해서도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회담이 열릴수 없게 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모략적인 《핵》소동에서 얻을것이란 하나도 없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인민들은 제국주의반동들의 《핵》소동의 모략적 정체를 환히 꿰뚫어보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들은 현실을 바로 보고 무모한 《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외세의존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동족간의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화합, 단결의 길로 나와야 한다. 이것이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옳은 길이다.

남조선괴뢰도당들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한사코 외세와 함께 《핵》소동을 벌리면서 동족을 반대하고 해치는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그들은 매국반역의 무리로서 온 겨레의 규탄, 배격과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봄》



• 조선의 봄풍경은 그 어디에 가나 아름답고 정서깊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애틋한 향취를 돋구어준다.

하기에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봄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불렀고 고향마을의 산천계곡을 사랑의 넋을 부어 화폭에 담았다.

조선미술박물관 소장작품인 《봄》은 지금까지 알려진 농촌풍경화가운데서 내용의 서사성에 있어서나 예술적형상의 사실주의적심오성에 있어서 손꼽힐만한 작품이다.

풍경화 《봄》에는 봄향기 그윽한 우리 나라 산간마을의 아름다운 서정적전경이 세련된 수법으로 생동하게 형상되여있다.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싼 높은 산들, 그 한가운데 자리잡은 농가들, 멀리 보이는 밭과 산굽이를 감돌아 흐르는 맑은 시내물, 강기슭의 갈대숲에 선체가 반만큼 가리운 쪽배, 연록색의 실버들과 만발한 연분홍빛 복숭아꽃, 살구꽃, 실로 이 모든것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우리 나라 농촌마을에 찾아드는 봄날의 정서를 감명깊게 안겨주며 조국산천에 대한 화가의 극진한 애착과 다함없는 긍지를 느끼게 한다.

키높이 자란 나무들사이에 보이는 농가들은 예로부터 처마를 마주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던 우리 인민들의 생활정서이며 산으로 둘러막힌 골안의 아늑한 모습을 잘 그려내고있다.

또한 이 화폭은 단순한 산수를 묘사대상으로 한데 그치지 않고 당시 우리 나라 인민들의 생활과 풍속을 자연현상과 잘 조화시켜 묘사함으로써 폭넓은 형상적경지를 찾아보게 된다.

소를 몰아 밭갈이하는 농민을 비롯한 다양한 형상들은 소박하고 근면한 옛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또한 화가의 세밀한 관찰력을 엿볼수 있게 하는 소, 닭, 강아지 등 동물들의 묘사는 화면을 더욱 흥미있게 장식하고있을뿐만아니라 당시 동물화의 발전수준에 대하여 잘 말하여준다.

근경, 중경, 원경으로 전개하여 산천의 웅대함을 집약적으로 일반화하였으며 준법으로 기암절벽의 아름다움을 생동하게 그려낸데 이 작품의 수법상 특성이 있다.

이처럼 《봄》은 창작적성과와 수법상특성으로 19세기 우리 나라 사실주의적풍경화의 고상한 사상예술적풍경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평양미술대학 미술리론강좌 리옥선

